

6. 나의 문학, 나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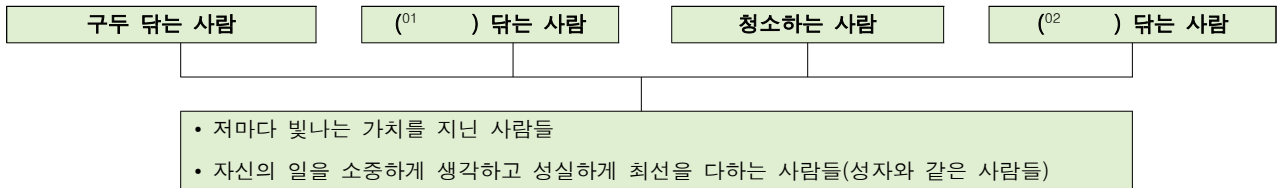
(1)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❶ 그 사람의 손을 보면/천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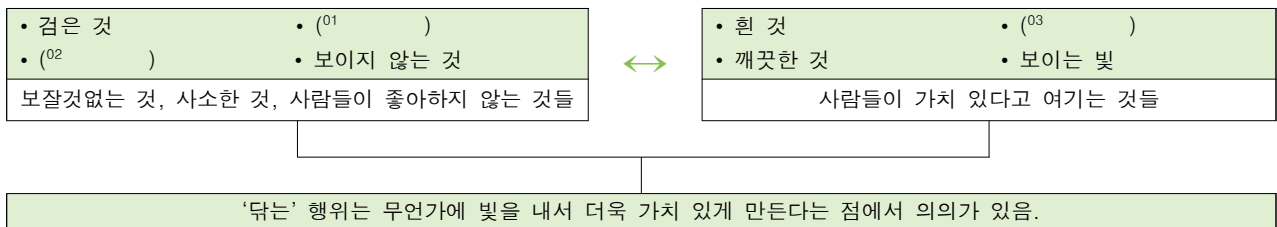
❷엄마의 말뚝/ 박완서

단원	6. 나의 문학, 나의 꿈 - (1)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교과서	248~249쪽
학습 주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문학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을 주체적 관점에서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다. 		

01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02 ‘대립적인 시어의 사용



03 표현 방식과 효과

	표현 방식	효과
시어, 시구, 시행, 통사 구조 등의 반복	‘~는 사람’, ‘~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빛이 난다’, ‘~은 아니다’와 같은 시어와 시구, 시행을 반복하고 1~4연은 통사 구조가 반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⁰¹)을 형성함. • 같은 시어나 시구, 유사한 구조 등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함.
(⁰²) 시어의 사용	‘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과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빛’의 대조와 ‘빛이 난다’와 ‘빛나는 것은 아니다’의 대비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일상적이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부각함.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천양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다양한 사람들의 손
성격	사색적, 교훈적
어조	단정적, 예찬적
특징	① 동일한 시어나 시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② 대조적인 의미의 시구를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함
주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

01 이 시에 대한 독자의 다음 반응과 관련 있는 요소를 <보기>에서 찾아 각각 그 기호를 쓰시오.

| 보기 |

<작품 안의 요소>

- ㉠ 작품에 담긴 주제
㉡ 시어나 시구의 함축적 의미
㉢ 이미지, 운율, 어조, 분위기
㉣ 구성상의 특징

<작품 밖의 요소>

- ㉤ 작가에 대한 연구 및 비평
㉥ 작가의 다른 작품
㉦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사회적 현실

- (1) 직업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왔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보게 되었어.
(2) 1연에서 4연까지 비슷한 내용과 구조가 반복되고 5연에서 구조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
(3) 이 시는 같거나 유사한 시어, 시구 등이 자주 반복되어 운율을 잘 느낄 수 있어.
(4) ‘빛이 난다.’라는 시구는 ‘가치가 있다.’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므로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시로 볼 수 있어.

02 다음 시구와 대조적 의미로 사용된 시구를 쓰시오.

- (1) 검은 것
(2) 비누 거품
(3) 쓰레기
(4) 보이지 않는 것

- ()
• ()
• ()
• ()

03 이 시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같거나 유사한 시어, 시구,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
(2)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
(3) 화자는 종교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진리에 대해 깨달은 바를 노래하고 있다. (○, ×)
(4) 화자는 일상적인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인식하고 있다. (○, ×)
(5)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은 화자가 생활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이다. (○, ×)

어휘 체크

04 다음의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 (1) 성자 • ㉠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또는 그런 것.
(2) 주체적 • ㉡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3) 함축적 • ㉢ 말이나 글이 어떤 뜻을 속에 담고 있는. 또는 그런 것.

02 활동&정리②

(1)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② 엄마의 말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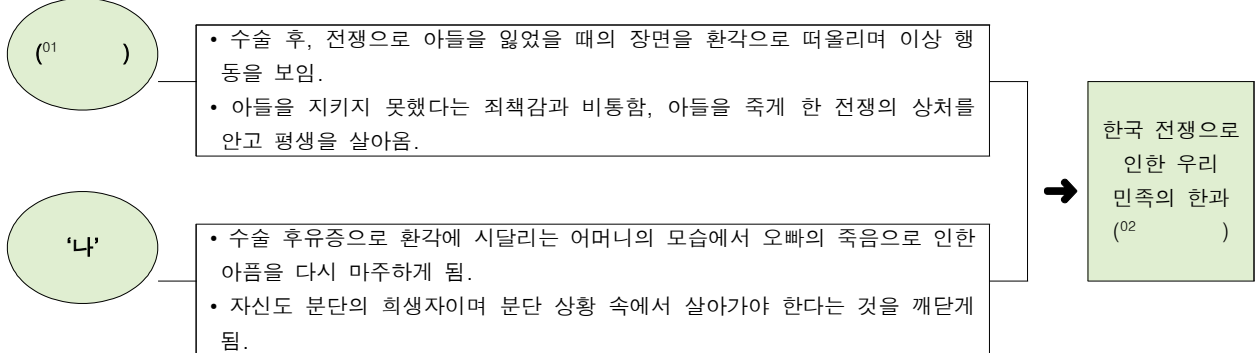
학년 | 반 | 번 | 이름 | 점수

단원	6. 나의 문학, 나의 꿈 - (1)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교과서	254~264쪽
학습 주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문학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의 말뚝 2’에 사용된 시점과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 ‘엄마의 말뚝 2’에 나타난 어머니의 행위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01 작품의 시점과 효과

(⁰¹) 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중 오빠를 잃은 ‘나’의 심리를 표현함. •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 자신의 심리를 서술함. • ‘나’가 어머니를 관찰하여 서술함. 		

02 주요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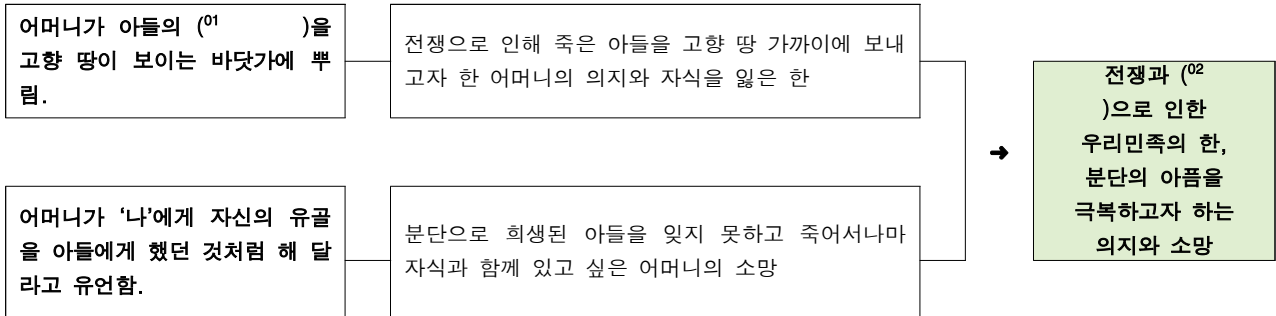


03 수술 후 어머니의 기이한 행위에 대한 간호원과 ‘나’의 대응

어머니의 행위	간호원	‘나’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취 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체온과 맥박만 확인함. •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나’를 쏘아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 달라고 조름. •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수면제나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청함.
어머니가 (⁰¹)에 질려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기성(奇聲)을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질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곧 나아질 것으로 판단함. •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고 병실을 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 때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⁰²)으로 나타난 것임을 앎. •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음.

단원	6. 나의 문학, 나의 꿈 - (1)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교과서	254~264쪽
학습 주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문학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의 말뚝’ 연작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 ‘엄마의 말뚝 2’를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01 작품의 시점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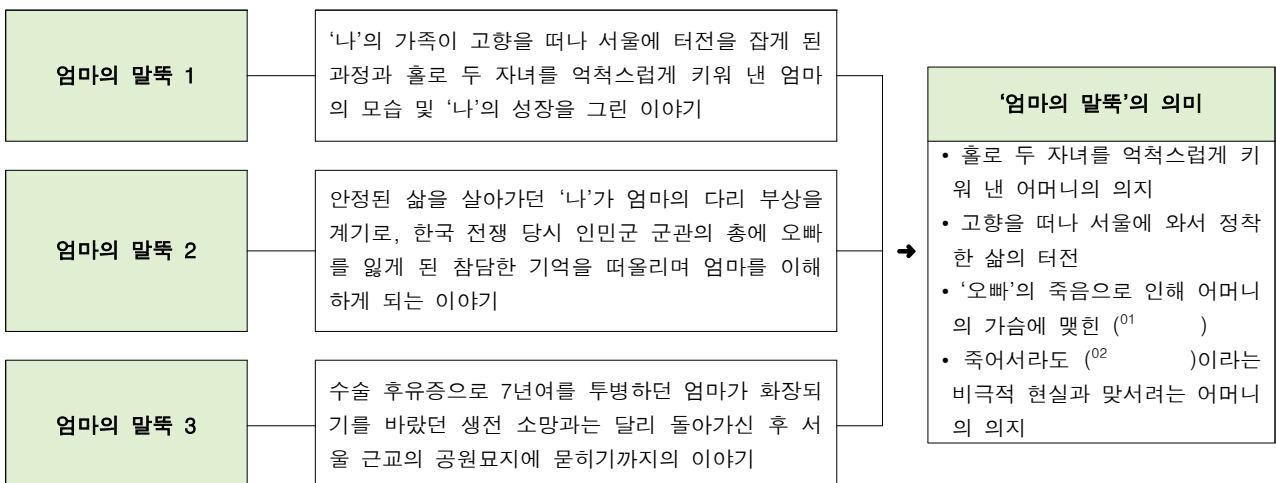


02 ‘엄마의 말뚝 2’의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나’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서 친정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감.	큰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전쟁 중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로 의식이 돌아가 환각 증세를 보임.	한국전쟁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⁰¹⁾)에 지원했다가 탈출한 뒤, 군관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짐.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뺨가루를 북쪽의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 달라고 말함.

* 이 작품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⁰²⁾)구성을 취하고 있다.

03 ‘엄마의 말뚝’ 연작의 전체 이야기와 제목의 의미



• 엄마의 말뚝 2(박완서)

갈래	중편 소설, 전후 소설, 연작 소설
제재	전쟁으로 인한 상처
성격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6.25 전쟁 당시와 분단이 고착된 시기 공간적: 서울
특징	①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 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음. ②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 ③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서사적으로 연결된 연작 소설 중 한 편임.
주제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 극복의 의지

01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이 소설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인 어머니를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
- (2)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저승의 사자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대결하였다. (○, ×)
- (3)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아들(남자)을 찾고 있는 인민군 군관을 마주했다. (○, ×)
- (4)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현실에서 격렬한 몸부림으로 나타났다. (○, ×)
- (5) ‘나’는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 ×)
- (6) ‘나’의 친구는 어머니의 수의와 묘지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나이롱 딸’이라고 했다. (○, ×)
- (7) 어머니는 무덤을 남겨 줘야 한다는 울케의 주장을 거부하고 오빠를 화장하였다. (○, ×)
- (8)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의 유골을 뿌렸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유골을 처리해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 ×)

02 <보기>는 ‘엄마의 말뚝 2’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보기>에서 찾아 각각 기호를 쓰시오.

<보기>	
㉠ 어머니	㉡ ‘나’
㉢ 오빠	

- (1) 환각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을 마주함.
- (2)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비통함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옴.
- (3) 전쟁 때 인민군 군관에 의해 죽임을 당함.

03 ‘엄마의 말뚝’이라는 제목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 홀로 자식들을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 오빠의 죽음을 가슴에 말뚝처럼 박고 살아온 어머니의 사무친 한	㉣ 어머니의 상처에 무관심한 간호원들에 대한 ‘나’의 분노

어휘 체크

04 다음의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보기>	
㉠ 절체절명	㉡ 애걸
㉢ 지척	㉣ 상정

- (1) 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뵈.
- (2) 아주 가까운 거리.
- (3)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보통의 인정.
- (4)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사람의 손을 보면(천양희)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㉔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㉕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㉖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0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적인 시구를 제시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대상을 연쇄적으로 연결하여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2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의 구조 반복
- ② 같은 시어의 반복
- ③ 동일한 시구의 반복
- ④ 반어적 표현의 반복
- 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03 ㉖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자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 ②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 ③ 자신이 하는 일과 대조되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④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과 함축적 의미가 같다.
- ⑤ 험한 일을 하면서도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04 ㉠과 거리가 먼 사람은?

- ① 영호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냈다.
- ② 주희는 특수 교육을 받는 친구가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다.
- ③ 지수는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 ④ 민희는 힘들어하는 반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그 친구를 위로해 주었다.
- ⑤ 영수는 담임 선생님이 검사하지 않아도 자신의 구역을 매일 성실히 청소했다.

05 **주관식** <보기>에서 ㉡와 그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찾아 쓰시오. (정답 2개)

<보기>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앓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 정현중,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06 <보기>는 이 시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이 시를 통해 그동안 귀찮다거나 하찮다고 생각하여 내가 하는 일들에 성실하지 못했던것을 반성했다. 그리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시는 유사한 의미의 연들을 나열하고, 유사한 의미와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각자의 일을 성실히 하는 가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이 시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반복인데, 시어나 시구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비슷한 연의 구조가 반복되는 정형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어떤 연구 논문을 보니 천양희 시인은 한때 '삶을 억압하는 무질서한 세계에 대한 대립에서 오는 허무 의식'을 소재로 삼아 시를 썼다고 하는데, 이 시의 대립적인 시어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① 시어나 시적 형식을 근거로 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끌어 낸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
- ② 비슷한 연의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맞지만, 이 시가 정형시는 아니야. 조금 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겠어.
- ③ 이 시에서 반복되는 시어나 시구 등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구체적인 시어나 시구 등을 제시해 주면 더욱 좋겠어.
- ④ 시를 통해 삶을 반성하는 자세가 좋았어. 나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열심히 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하고 싶어.
- ⑤ 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좋지만 인용된 내용은 이 시와는 거리가 있어. 이 시에 대립적인 시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무질서한 세계에 대한 대립에서 오는 허무 의식이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0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엄마의 말뚝 2(박완서)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으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 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奇聲)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 내는 호스도 다 뜯어 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처 나이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 기구들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짊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뿜아낸 것들을 다시 삼입했다. 링거는 스팀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혼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뽁뽁 묶게 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예잇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㉞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07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수간호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
- ② 어머니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 ③ 어머니는 꿈속의 군관에게 호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 ④ 어머니는 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⑤ 수간호원은 어머니가 기성을 지르는 이유를 ‘나’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08 [서술형] 윗글을 바탕으로, 이 소설의 제목인 ‘엄마의 말뚝’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5점]

0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장면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급격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내적 독백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를 강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딸인 ‘나’밖에 없기 때문에
- ② 어머니의 광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간호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기 때문에
- ③ 어머니가 앓는 병을 자식인 ‘나’만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④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아픔에 맞서는 것은 ‘나’와 어머니의 몫이기 때문에
- ⑤ 어머니를 제대로 묶어 놓지 않고 나가 버린 간호원들에게 더는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엄마의 말뚝 2(박완서)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

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제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어머니는 ‘오빠’를 매장하는 문제로 갈등했다.
- ② 어머니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 ③ 어머니는 ‘오빠’의 유골을 고향을 향해 뿌리며 병이 낫길 염원했다.
- ④ 어머니는 ‘오빠’의 무덤을 남기자는 율케의 주장을 무례하다고 여겼다.
- ⑤ 어머니는 비장한 마음으로 ‘오빠’의 유골을 고향이 보이는 바닷가에 뿌렸다.

1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③ 현재의 관점에서 인물과 관련된 과거를 회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과거의 ‘나’의 시선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의 과거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며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13 **주관식** 윗글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2어절로 쓰시오.

<보기>

-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한 것
- 분단과 홀로 맞섰던 어머니의 의지
- 죽어서나마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어머니의 소망

14 **서술형**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5점]

<보기>

이 소설에서 어머니는 수술 후 전쟁으로 아들을 잃었을 때의 장면을 환각으로 떠올리며 이상한 행동을 한다. 어머니의 병은 겉으로는 골절 후유증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병’이기도 하다.

[2005 평가원 모의고사 9월]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번 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잡고 돈도 뭐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墨契)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간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예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 니 잘 들어 댔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족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관의 발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날뜰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울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울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빠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恨)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 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 곱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A]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㉔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감각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02 ㉓~㉔ 중에서 ㉔의 심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㉓
- ② ㉔
- ③ ㉓
- ④ ㉔
- ⑤ 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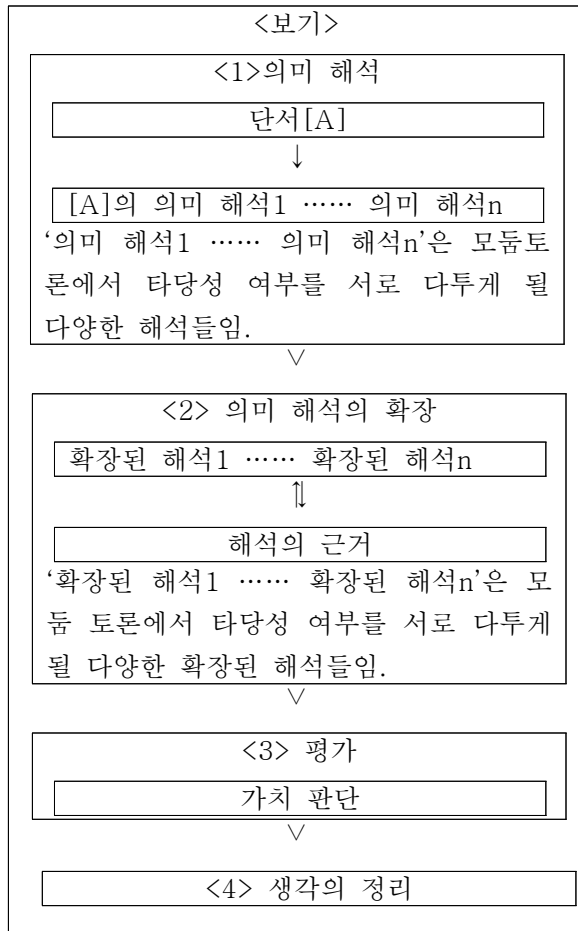
03 ㉔과 같이 말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체험의 동질성
- ② 성격의 동질성
- ③ 신념의 동질성
- ④ 심리의 동질성
- ⑤ 생사관(生死觀)의 동질성

04 ㉔과 ㉔을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묘를 쓰고 싶어 한다.
- ② ‘나’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 ③ ‘어머니’는 고향을 떠난 일을 후회하고 있다.
- ④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떠나보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
- ⑤ ‘어머니’와 ‘나’는 내심 오빠를 화장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05 윗글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모듬 토론을 준비하려고 한다. [A]를 단서로 하여 정리한 생각 중에서 <보기>에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①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민족 모두를 뜻하지. 한 역사학자는 분단을 우리 민족이 여전히 겪고 있는 ‘충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어. 이 글은 ‘어머니’를 통해 아직도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하는 민족의 한을 전형적으로 형상

화한 대목이야.

②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어머니’는 분단을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축소시키는 소시민에 속하지. 소시민의 현실 인식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주장된 바 있어. 이 글은 소시민이 그 점을 극복할 때에만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야.

③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임을 알 수 있어. ‘어머니’라는 개인과 대결하는 분단이 거대한 적이라는 뜻이지. 그러나 분단이 아무리 거대한 적일지라도 개인은 그것과 대결하게 되지. 이 글은 거대한 적인 분단 상황과 맞서 싸우는 것이 개인이 가지게 될 태도라는 사실을 형상화한 대목이야.

④ [A]를 보면 ‘어머니’는 죽음으로써 분단과 대결하고 있어. 분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서도 묘지에 묻히기를 거부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죽은 자가 결코 현실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진실이지. 이 글은 분단의 극복을 관념적인 문제로 축소시킨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야.

⑤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인물로 나오지. 비극적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 속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역사와 개인이 상호 작용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야. 이 글은 그 사실을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제시하면서 있어야 할 올바른 우리 역사의 모습을 암시한 대목인 셈이지.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사람의 손을 보면(천양희)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01 이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합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외양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③ 대상이 지닌 속성의 참된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④ 대상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02 서술형 이 시의 화자가 <보기>의 '김 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작품 속 시어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8점]

<보기>

김○○ 씨는 공장에서 지게차를 끌며 모은 돈으로 자신의 꿈이던 세계 일주를 떠났다. 김 씨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팔의 한 교사를 만났다. 이 교사는 김 씨에게 “네팔의 강진 때문에 우리 학교 제자 수십 명이 죽었다. 무너진 우리 학교를 도와 달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가난한 여행자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트만두 숙소 옆에서 자기 몸보다 큰 삼을 들고 건물 잔해를 치우는 꼬마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흙투성이 손으로 벽돌까지 나르던 네 살짜리 아이의 이름은 ‘로젠’이었다. 김 씨는 로젠의 사진과 함께 도움을 청하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 30여 명이 40만 원을 보내 주었다. 그 돈으로 로젠과 로젠 누나의 2년치 학교 등록금을 내줄 수 있었다.

김 씨는 세계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네팔을 응원하는 각국 사람들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신이 찍은 여행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 보내 주는 모금 활동도 하였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는 네팔로 다시 돌아가 모금액으로 로젠이 다니는 학교의 무너진 도서관을 새로 지어 줄 수 있었다. 김 씨는 “배달 일과 지게차 운전을 하던 나 같은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내 꿈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기뻐다.”라고 하였다.

- 조선일보 2016년 9월 14일 자

03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③ 대립적인 시어들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화자의 개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고난도

04 **수능형** ㉠과 가장 유사한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이는 것은?

- ① 사랑도 어찌면 / 그와 같은 것인가. / 소나기 처럼 숨이 차게 /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 ②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 백석, '선우사 - 함주시초 4'
- ③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운 편지'
- ④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 자주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⑤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히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다 / 청태라도 자옥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나) 엄마의 말뚝 2(박완서)

(가)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펄떡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곤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켰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뺨쓰는 뺨쓰,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 놔가지 한데 쑤서 박아 놓으면 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켜는 쉿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의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鬼氣)가 감돌았다.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랄따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덜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입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 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깐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나)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봉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꿈쩍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掩護)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肉薄)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몫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0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에서 ‘나’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에서 어머니는 병원에 있느라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 ③ (나)에서 ‘나’는 어머니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고 있다.
- ④ (나)에서 어머니는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다리를 아들로 착각하고 있다.
- ⑤ (나)에서 어머니는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06 (가)에서 ‘나’와 간호원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의 수술 결과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 ② 처음부터 ‘나’가 원했던 약을 간호원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 ③ ‘나’가 간호원이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④ ‘나’와 간호원 모두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 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나’와 간호원의 대응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07 서술형 (나)에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5점]

<보기>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상처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쟁 속에서 겪은 끔찍한 사건들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인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박완서의 연작 소설 ‘엄마의 말뚝’도 이에 해당한다.

0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상당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② 어머니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담겨 있다.
- ③ 죽음의 문턱에서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④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⑤ 군관이 아들을 찾아내지 못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의미한다.

[0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다) 엄마의 말뚝 2(박완서)

(가)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영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先塋)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抵當) 잡고 돈도 켜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墨契)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 만든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나)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 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족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빠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 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 껏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 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0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상징적 행위를 활용하여 인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여 내용의 현실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상세히 묘사하며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 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단이 가져온 비극에 맞서려는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② 친구의 말에 대해 변명하고 싶은 ‘나’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③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④ 먼저 죽은 ‘오빠’에 대한 ‘나’와 어머니의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⑤ 거대한 현실에 맞서는 어머니의 무모하고 초라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11 **수능형 <보기>**는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엄마의 말뚝 2’는 소설 속의 주인공 ‘나’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과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 있다.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동등한 입장에서 서술할 수 있다.
- ② 어머니의 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어서 한 개인의 아픔을 잘 드러낼 수 있다.
- ③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시대적 특성을 강조할 수 있다.

- ④ 어머니와 ‘나’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인물들의 아픔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 ⑤ 어머니의 행동과 그로 인한 ‘나’의 심리를 동시에 서술하며 시대적 비극 상황으로 인한 아픔을 드러낼 수 있다.

12 **서술형 <보기>**는 연작 소설 ‘엄마의 말뚝’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의 제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5점]

<보기>	
엄마의 말뚝 1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 터전을 잡게 된 과정과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엄마의 모습 및 ‘나’의 성장을 그린 이야기
엄마의 말뚝 2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 군관의 총에 오빠를 잃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
엄마의 말뚝 3	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엄마가 화장되기를 바랐던 생전 소망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권오철)
(나)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성석제)

(가)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저마다 가진 능력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다 달라요.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알기까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것까지가 바로 나의 한계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책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편적인 정보가 아

나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니까요. 저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중학생 때 관심을 가졌던 새에 대한 지식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게 해 준 계기도 한 권의 책이었지요. 또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천체 사진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발전하게 해 준 것도 책이었습니다. 이런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참, 고등학생 때 제 운명을 바꾼 그 책의 개정판 사진은 제가 촬영했답니다. 참 재미있는 인연이지요. 여러분도 책과 만나 더 크고 넓은 경험을 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답니다.

통합

(나)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나는 몇 백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 활동 시간은 없어졌다. 내가 1학기의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것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 준다. 책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다. 책은 지구 상에서 인간이라는 종(種)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13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모두 같다.
- ② 필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꾼 책의 개정판 작업에 참여하였다.
- ③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기 어렵다.
- ④ 필자는 천체 사진을 찍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서 사진을 전공하였다.
- ⑤ 필자는 독서 외에 다른 매체를 통해 새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었다.

1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험을 통해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다.
- ③ 과거의 독서 경험을 현재의 활동과 연관 짓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독서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독서로 인한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5 (가)와 (나)의 필자가 '독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저는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고,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게 해 준 것도 책이지요.
- ② (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특별 활동시간에 읽었던 책이 아니었다면 지금 소설을 쓰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 ③ (가): 역시 독서는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죠.
- ④ (나): 네. 독서는 지극한 정신문화를 느끼는 행복을 안겨 주기도 하죠.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 ⑤ (가): 맞아요. 책과 만나서 크고 넓은 경험을 하게 되면 언젠가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1) 우리의 노래

① 향가와 시조

② 관동별곡

(2) 우리의 이야기

유자소전/ 이문구

단원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 (1) 우리의 노래	교과서	294~295쪽
학습 주제	시가 문학의 전통과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감상하고 시가 문학의 전통을 파악한다. 월명사의 '제망매가'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생산 활동을 한다. 		

01 구성 요소에 따른 작품 분석

창작 시기	신라 경덕왕 때
화자	(⁰¹)의 죽음으로 슬픔과 비탄을 느끼다가 이를 종교적으로 초극함.
제목의 의미	죽은 (⁰²)의 제사를 지내는 노래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른 바람: 누이의 (⁰³) 한 가지: 같은 (⁰⁴) (⁰⁵):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정도
어조	애상적, 의지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 '있', '한 가지'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10구체 (⁰⁶)의 특징인 '낙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함.

**주제**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02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감정 및 태도 변화

구	감정 및 태도
1~4구	(⁰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혈육의 정
5~8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
9~10구	슬픔의 (⁰²)적 승화, 의지적 태도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이를 (⁰³)하려는
내면적 의지를 드러냄.

03 10구체 향가와 평시조의 비교

10구체 향가	평시조
1~4구	초장
5~8구	중장
9~10구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를 둠.)	종장 (종장의 첫머리는 3음절이며, 감탄사를 두기도 함.)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⁰¹)장 구조 시상 전개 방식에서 향가의 9, 10구와 시조의 (⁰²)은 공통적으로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하는 기능을 담당함. 	

단원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 (1) 우리의 노래	교과서	296~297쪽
학습 주제	시가 문학의 전통과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순의 시조와 황진이의 시조를 감상하고 시가 문학의 전통을 파악한다. 송순의 시조와 황진이의 시조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생산 활동을 한다. 		

01 구성 요소에 따른 ‘십 년을 경영하여~’ 분석

창작 시기	조선 시대	→	주제 자연에 귀의하여 (05) 하는 삶
화자	(01)년 동안 계획하여 (02)에 은거하여 살고자 함.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려 삼간: 세 칸으로 된 작은 초가. 청빈한 삶을 의미함. 달, 청풍, 강산: 더불어 살고 싶은 자연 		
어조	관조적, 풍류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하나된 (03)의 경지를 표현함.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옮김. ‘나 한 간 둘 한 간에 청풍 한 간’과 같이 반복과 (04)를 통해 운율을 형성함. 		

02 구성 요소에 따른 ‘동지스돌 기나긴 밤을~’ 분석

창작 시기	조선 시대	→	주제 (06)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화자	(01)달의 긴 밤을 보내며 임을 그리워함.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풍 니불: 봄바람 같이 따뜻한 (02) 서리서리, 구뵈구뵈: (03)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의태어 어른 님: 사랑하는 임, 정을 나눈 임 		
어조	감상적, 낭만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04)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변용하여 표현함. (05)를 효과적으로 구사함. 		

03 두 시조에 드러나는 참신한 발상

‘십 년을 경영하여~’	‘동지스돌 기나긴 밤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을 사용하여, 자연물에게 방을 내어 준다고 표현함. 방이 부족하니 ‘강산’은 (02)처럼 돌려 두고 보겠으며 재치 있게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적 개념인 ‘(03)’이라는 시간에 ‘허리’가 있고 그것을 베어 낼 수 있다며 구체화하여 표현함. ‘(04)’, ‘구뵈구뵈’와 같이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함.

• 제망매가(월명사)

갈래	10구체 향가
제재	누이의 죽음
성격	추도적, 애상적, 불교적
어조	애상적, 의지적
특징	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종교적으로 초극함. ② ‘바람’, ‘잎’, ‘한 가지’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문학적 수준이 높음.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를 하시오.

- (1) ‘제망매가’라는 제목을 통해,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다. (○, ×)
- (2) ‘나는 간다는 말도 /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는 ‘누이’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
- (3) ‘이른 바람’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높은 문학성을 성취하고 있다. (○, ×)
- (4) ‘가는 곳 모르온저.’라는 구절에서 인생무상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 ×)
- (5) 이 작품을 지은 이의 신분으로 볼 때 불교적 성격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
- (6) 미래, 현재, 과거의 시간 순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
- (7) 누이의 죽음에 대한 비탄과 슬픔이 ‘아아’로 시작되는 9~10구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이 작품은 신라 시대에 창작된 (4구체 / 8구체 / 10구체) 향가인데, 이 갈래의 형식은 조선 시대의 (시조 / 한시) 형식으로 계승되었다.
- (2)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는 구절에서 미래에 대한 (체념적 / 의지적) 태도를 느낄 수 있다.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생사 길은 /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
㉥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 (1)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
- (2)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어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다. ()
- (3) 시적 대상이 화자의 혈육임을 알 수 있다. ()
- (4) 대상의 죽음이 예상보다 이른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
- (5) 대상의 죽음을 ‘잎’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어휘 체크

04 다음 시구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1) 이른 바람 | • | ㉠ 불교적 이상 세계. |
| (2) 떨어질 잎 | • | ㉡ 같은 부모. |
| (3) 한 가지 | • | ㉢ 누이의 요절. |
| (4) 미타찰 | • | ㉣ 누이의 죽음. |

•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갈래	평시조
제재	전원 생활
성격	전원적, 풍류적, 한정가
특징	자연과 하나 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가 드러남.
주제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

•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황진이)

갈래	평시조
제재	동짓달의 긴 밤, 임에 대한 연정
성격	감상적, 낭만적, 연정가
특징	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변용하여 표현함. ② 음성 상징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함.
주제	임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송순의 시조 ‘십 년을 경영하여~’에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
-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 혼 간 맞져 두고’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다. (○, ×)
- ‘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에서는 ‘강산’에 대해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
- 황진이의 시조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다. (○, ×)
- 황진이의 시조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화한 표현이 돋보인다. (○, ×)
- ‘서리서리’와 ‘구뽀구뽀’와 같은 시어는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 ×)
- 황진이의 시조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에는 임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십 년을 경영하여~’의 화자는 (자연 / 문명)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십 년을 경영하여~’에서 화자의 시선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에서 (동지스들 / 춘풍 니불)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
-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풍자적으로 /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행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뽀구뽀 퍼리라.

-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자연물이 드러난다. ()
- 화자가 소망하는 행위를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 ‘시간’에 몸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발상이 돋보인다. ()

어휘 체크

04 <보기>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관련 있는 한자 성어를 쓰시오.

보기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단원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 (1) 우리의 노래	교과서	302~309쪽
학습 주제	시가 문학의 전통과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철의 '관동별곡'을 감상하고 시가 문학의 전통을 파악한다. 정철의 '관동별곡'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생산 활동을 한다. 		

01 구성 요소에 따른 작품 분석

창작 시기	조선 시대
화자	(⁰¹) 지방을 기행하며 자연 친화적 자세와 선정의 포부를 드러냄.
구성	[서사] 강원도 관찰사 부임과 관내 순력 [본사] (⁰²)과 관동 팔경 유람 [결사] (⁰³)의 달맞이와 풍류
어조	비유적, 영탄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산수, 풍경, 고사, 풍속, 감회 등을 이야기함. 3(4)·4조, (⁰⁴)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음. 영탄, 대구, 은유, 직유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함. (⁰⁵)의 묘미를 살리는 표현이 많음.

→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선정의
포부

02 화자의 정서와 태도

(⁰¹) (임금에 대한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흐마면 뵈리로다.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명(木淸)의 다히고져.
(⁰²)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논다.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人傑)을 문돌고자.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⁰³) 선정의 포부 (백성에 대한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당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스라. 일이 도흔 세계(世界) 늬대되 다 뵈고져.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海)에 고로 논화, 억만창성(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後)의, 그제야 고터 맛나 쏘 혼 잔 흐жат고야.
(⁰⁴) (신선을 동경하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우개지륜(羽蓋芝輪)이 경포(鏡浦)로 느려가니, 선사(仙槎)를 띄워 내어 두우(斗牛)로 향(向)흐살가, 뉴하주(流霞酒) 그득 부어 돌드려 무론 말이, 그딴을 내 모르라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03 화자의 내적 갈등

사회적 자아	개인적 자아
(⁰¹)적 충의 사상	도교적 신선 지향
(⁰²)로서의 책임과 의무	자연에서 (⁰³)를 즐기고 싶은 욕망
금강산	관동 팔경(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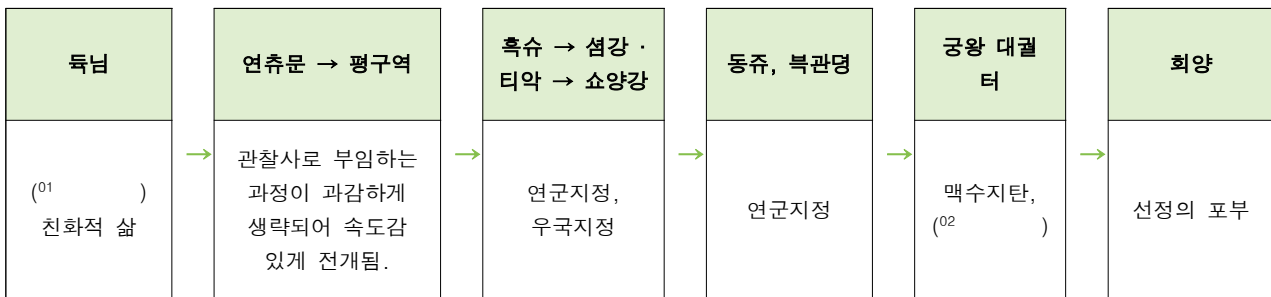
↔

갈등

단원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 (1) 우리의 노래	교과서	302~309쪽
학습 주제	시가 문학의 전통과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철의 '관동별곡'을 감상하고 시가 문학의 전통을 파악한다. 정철의 '관동별곡'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생산 활동을 한다. 		

01 여정에 따라 화자가 경험한 것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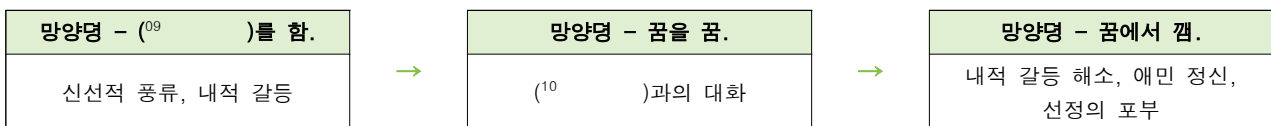
<본사 1> 금강산 유람



<본사 2> 관동 팔경 유람



<결사>



• 관동별곡(정철)

갈래	기행 가사, 양반 가사
제재	금강산, 관동 팔경
성격	서사적, 서정적, 비유적, 유교적, 도교적
어조	영탄적, 감상적
특징	① 3(4) · 4조,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음. ②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는 표현이 많음. ③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④ 화자의 정서적 추이와 갈등이 함축적으로 드러남. ⑤ 영탄, 대구, 은유, 직유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⑥ 여정, 산수, 풍경, 고사, 풍속, 감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선정의 포부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화자는 자연에서 묻혀 살다가 임금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 ×)
- 화자가 임금을 뵈고 하직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 ×)
- ‘서사’ 부분에는 화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
- ‘회양’에서 시적 화자는 ‘금당유’의 고사를 떠올리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 이 작품에는 자연물을 묘사하기 위해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 ×)
- 화자는 ‘비로봉’에 올라 공자의 호연지기를 느끼고 있다. (○, ×)
- 화자는 ‘녀산’ 못지않게 ‘십이 폭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다. (○, ×)
- 화자는 자신을 ‘취선’에 빗대며 도교적 신선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 ×)
- 화자는 일출 장면을 보며 임금의 충명을 간신배들이 가릴까 봐 걱정하고 있다. (○, ×)

- ‘독서루’에서 아름다움을 계속 즐기고 싶은 욕망과 관찰사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봄 / 가을)이다.
- 이 작품의 ‘본사’는 (공간의 / 시간의) 이동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서호 뱃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 송근을 베여 누어 꽃즙을 얼핏 드니,

- 산봉우리의 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다. ()
- 자신을 신선에 빗댄 화자의 호방한 풍모가 드러나 있다. ()
- 현실에서 꿈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

어휘 체크

04 다음 시구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1) 음예에 이온 풀 | • | • ㉠ 경포의 미풍양속을 잘 보여 주는 이야기. |
| (2) 홍장 고사 | • | • ㉡ 임금이 화자에게 보낸 은혜를 상징함. |
| (3) 빅년화, 뉴하쥬 | • | • ㉢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 |

0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화자는 (강원도 / 경기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 (2) 화자는 (산 / 바다)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욕망을 더 느끼고 있다.
- (3) ‘왕당이 유희하고 풍경이 못 슬미니, 유희도 하도 할사 깃수도 들 디 업다’에서 (왕당 / 깃수)은/는 관찰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뜻한다.
- (4) 화자가 꿈에서 만난 사람은 화자를 (신선 / 관찰사)(이)라고 말하였다.

0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회양(淮陽) 네 일홈이 마초아 ㄹ툴시고.
- ㉡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 ㉢ 녕농(玲瓏) 벽계(碧溪)와 수성(數聲) 데도 (啼鳥)는 니별(離別)을 원(怨)호는 듯,
- ㉣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海)에 고로 논하,
- ㉤ 넘거나 넘은 텃하(天下) 엇씨호야 적닷 말고.
- ㉥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호마면 비리로다.
- ㉦ 더 귀운 호터 내야 인걸(人傑)을 문들고 자.
- ㉧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 ㉨ 산둥(山中)을 밋양 보라 동해(東海)로 가자스라.
- ㉩ 급당유(汲長孺) 풍취(風彩)를 고태 아니 볼 게이고.
- ㉪ 정기(旌旗)를 썰티니 오식(五色)이 넘노는 듯,
- ㉫ 명월(明月)이 천산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췌 디 업다.

- (1) 지명을 활용하여 선정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다. ()
- (2) 여정의 변화가 드러난 부분이다. ()
- (3) 서울을 떠난 신하의 근심을 표현하고 있다. ()
- (4) 공자의 호연지기에 대한 감탄이 드러나 있다. ()
- (5) 꿈에서 만난 신선의 말로, 애민 정신이 드러나 있다. ()
- (6) 관찰사의 화려한 행렬을 짐작하게 한다. ()
- (7)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었다. ()
- (8) 임금이 계신 곳이 어찌면 보일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통해 연군지정을 드러내고 있다. ()
- (9) 자연물을 바라보며 뛰어난 인재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다. ()
- (10) 선정을 베푼 인물의 고사를 떠올리며 선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
- (11)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미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 (12) 아름다운 자연물을 만든 조물주의 조화를 신비롭게 여기는 구절이다. ()

어휘 체크

03 다음 시구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 | | | |
|-----------|---|----------------|
| (1) 삼일우 | • | • ㉠ 선정의 기회. |
| (2) 풍운 | • | • ㉡ 경륜을 지닌 화자. |
| (3) 천년 노룡 | • | • ㉢ 임금의 은총. |
| (4) 널구름 | • | • ㉣ 간신배. |

[01~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제망매가(월명사)
(나)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다)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황진이)

(가) 생사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 간
(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쳐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
라.

(다)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01 (가)와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부정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계절감을 이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순우리말과 우리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여 준다.

02 (나)와 (다)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학과 풍자를 담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 ② 45자 내외의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한다.
- ③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되어 있다.
- ④ 주로 사대부 작자가 많았으나, 기녀들도 창작에 참여했다.
- ⑤ 유교적 충효 이념과 자연 친화, 이별의 정한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다.

03 **주관식** 형식상 ㉠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
구를 (나)와 (다)에서 찾아 쓰시오.

- (나): ()
- (다): ()

04 ㉡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이 푹푹 /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 신동집, '오렌지'
- ② 전원(田園)에 나른 흥(興)을 전나귀에 모도
싣고
- 김천택, '전원에 나른 흥을~'
- ③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
게 마시려다만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④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 막음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⑤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
데, /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05 (나)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서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① 농경 생활로의 회귀 의지가 나타난다.
- ② 세속적인 삶에서 느낀 환멸이 드러난다.
- ③ 이상적인 공간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④ 타인과의 소통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소박한 삶에 대한 자조적인 정서가 나타난다.

06 **수능형** (가)의 화자가 <보기>를 읽은 후 할 수 있는 말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兄)님!
불렀다.
오오냐.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 박목월, '하관'

- ① 가족을 떠나보낸 자의 슬픔과 비통함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구나.
- ② 나는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꿈'에서 아우를 만났구나.
- ③ 시작은 같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삶이라도 그 끝은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난다.
- ④ 아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이 사람처럼 나도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진다.
- ⑤ 이 사람도 느끼고 있듯, 환상의 공간에서 혈육을 다시 만난다 해도 산 사람의 세계와 죽은 사람의 세계는 다르지.

07 **서술형** (다)의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5점]

[08~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라) 관동별곡(정철)

(가) 강호(江湖)에 병(病)이 김피 독림(竹林)의 누엇더니,
관동(關東) 팔백(八百) 니(里)에 방면(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
연추문(延秋門) 드리드라 경회(慶會) 남문(南門) 바라보며,
하직(下直)고 물너나니 옥절(玉節)이 알픽 섰다.
평구역(平丘驛) 물을 그라 흑슈(黑水)로 도라드니,
섬강(蟾江)은 어디메오 티악(雉岳)이 여기로다.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동주(東州) | 밤 게오 새와 북관당(北寬亭)의 올라흐니,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흐마면 뇌리 로다.

궁왕(弓王) 대궐(大闕) 터회 오작(烏鵲)이 지지
괴니,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는다 몰으는다.
회양(淮陽) 네 일홈이 마초아 ㄹ틀시고,
급장유(汲長孺) 풍채(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
이고.

(나) 금강딕(金剛臺) 민 우층(層)의 선학(仙鶴)이
삿기 치니,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즙을 썩듯던디,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
보고,
정양스(正陽寺) 진혈딕(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
마리,
너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썩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왔는
듯.
놉홀시고 망고딕(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
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ㄹ트니 쏘 잇는가.

(다) 원통(圓通)골 ㄹ는 길로 스즈봉(獅子峰)을 츠
가니,
그 알픽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구빅구빅 서려 이서,
듀야(晝夜)의 홀녀 내여 창희(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
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磨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
머 디여,
외나모 써근 드리 불딩딕(佛頂臺) 올라흐니,
천심절벽(千尋絕壁)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슈(銀河水) 한 구빅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ㄹ티 플터이서 뵈ㄹ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빅 내 보매는 여러히라.
니덕선(李謫仙)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㉑너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흐려니.
산둥(山中)을 미양 보라 동희(東海)로 가자스라.

남여완보(籃輿緩步)흐야 산영누(山映樓)의 올라
흐니,
녕농(玲瓏) 벽계(碧溪)와 수성(數聲) 데도(啼鳥)
는 니별(離別)을 윈(怨)흐는 듯,
정기(旌旗)를 썰티니 오식(五色)이 넘노는 듯,
고각(鼓角)을 섯부니 희운(海雲)이 다 져는 듯.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
러,
바다홀 것틱 두고 희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백구(白鷗)야 느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라) ㉒쑤애 ㉓흔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이,
그딕를 ㉔내 모르랴 상계(上界)에 ㉕진선(眞仙)
이라.
황딩경(黃庭經) 일즈(一字)를 었디 그릇 닐거
두고,
인간(人間)의 내려와서 ㉖우리를 쏘오는다.
저근딕 가디 마오 이 술 흔 잔 머거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희슈(滄海水) 부어 내
여,
㉗저 먹고 날 머거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흐야 낭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九萬) 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로
다.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海)에 고로 논화,
억만창싱(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後)
의,
그제야 고터 맛나 쏘 흔 잔 흐갯고야.
말 디자 학(鶴)을 트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둥(空中) 옥쇼(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즙을 썩여 바다홀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ㄹ인들 었디 알리.
㉘명월(明月)이 천산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
췌 딕 었다.

08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병 때문에 강호에 묻혀 살고 있었다.
- ② 화자는 관동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을 맡았다.
- ③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는 연주문, 경희 남문을 지나야 했다.
- ④ 화자가 들른 지역 중에 급장유가 다스린 지역과 동일 지명이 있다.
- ⑤ 화자가 삼각산 제일봉을 바라보려 한 이유는 임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09 (나)에서 드러난 이 작품의 표현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다채로운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옛글에 사용되었던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 ④ 3음보 연속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대구법, 직유법 등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10 [주관식] (다)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시어 2개를 찾아 쓰시오.

11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국의 여산이 금강산보다 아름답다.
- ② 언젠가는 중국 여산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고 싶다.
- ③ 금강산과 중국 여산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④ 중국의 여산과 비교해도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 ⑤ 금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중국의 여산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호방한 기상이 드러난다.
- ②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한다.
- ③ 화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전생이 드러난다.
- ④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화자의 책임감이 드러난다.
- ⑤ 화자의 여정을 되짚어 그를 통해 깨달은 바를 요약한다.

13 ㉢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적인 욕구가 좌절된 것을 슬퍼하고 있다.
- ② 풍류를 즐기며 살아갈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임무를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 ④ 자연 경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 ⑤ 임금의 덕이 백성에게 고루 미치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14 ㉡~㉢ 중, 화자를 가리키는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08 평가원 모의고사 6월]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습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A]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회개,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B]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들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02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03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0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06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간밤에 부던 <u>바람</u> 만정 <u>도화</u> (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B.	<u>바람</u> 불어 쓰러진 <u>나무</u>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을쏘나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2015 수능 B형]

[0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뉘뉘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천하 엇씨헛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헛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헛거니 느려가미 고이힐가
원통골 ㄴ는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퐁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빅구빅 서려 이서
주야의 흘녀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㉔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느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㉕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
재 너머디여

외나모 써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흐
니

[A]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
고

은하수 한 구빅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ㄴ티 플터이서 뵈ㄴ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빅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호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호려니

산중을 밋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㉖남여(籃輿) 완보(緩步)호야 산영루(山映樓)
의 올라흐니

영룡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원(怨)호는 듯

- 정철, '관동별곡'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 길
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엮지 못해 완
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
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
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
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
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
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얕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
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
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
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
우 세 명뿐이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B]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
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
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
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같
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
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
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
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
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부상: 해가 뜨는 동쪽 바다.

07 ㉑~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여행에 대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㉒: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
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 ③ ㉓: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㉔: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 ⑤ ㉕: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
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0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9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울은 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긋득 노흔 고래 뉘라서 놀내관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
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
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10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단원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 (2) 우리의 이야기	교과서	318~324쪽
학습 주제	서사 문학의 전통과,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서사 문학 작품인 '유자소전'을 감상한다. '유자소전'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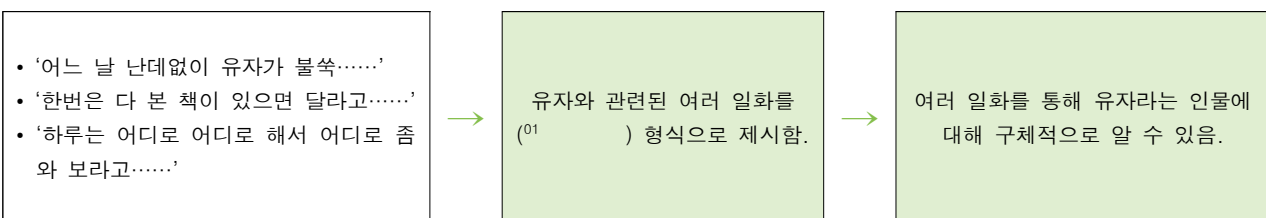
01 작품의 형식 및 내용상 특징

유자(兪子) 주인공 유재필을 '유자(兪子)'라 칭함.		한국 서사 문학의 전통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傳)'의 양식 차용: 고전적인 '전(傳)'의 양식을 차용하여 유자라는 인물의 생애를 통해 (⁰¹)을 전달함. (⁰²)와 해학: 우스꽝스러운 언행을 하는 인물을 통해 현대인의 속물적이고 과시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함.
+		
소전(小傳) 짧은 전(傳)으로, 인물의 일생을 추모하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고전적인 서술 방식		

02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

유재필(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성이 깔끔하고 사려 깊으며 어수룩해 보이지만 솔직함.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지만, 남을 잘 도와줌. 품성이 성인과도 같다고 여겨 (⁰¹)라 칭함.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글의 서술자임. 소설가로 유재필의 삶을 관찰하고 '전(傳)'을 씀.
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 그룹의 총수로 (⁰²)이며 사치스러움. 유자를 작천시킴.

03 작품의 구성 방식



단원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 (2) 우리의 이야기	교과서	318~324쪽
학습 주제	서사 문학의 전통과,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서사 문학 작품인 '유자소전'을 감상한다. '유자소전'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01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특징	효과
충청도 ⁽⁰¹⁾ 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을 획득함. 주인공을 친근하게 느끼게 함.
비속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⁰²⁾하고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함. 주인공을 친근하게 느끼게 함.
⁽⁰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음악가의 이름을 우스꽝스럽게 바꿈으로써 웃음을 유발함. 고상한척 하는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풍자함.
비꼬는 어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의 허영심과 이기심을 비꼬고 풍자함.

02 중심 소재의 기능

⁽⁰¹⁾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넘는 비상식적 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상류층의 사치스러움과 물질 만능 주의를 보여 줌. 상류층의 허황되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소재 비단잉어에 대한 총수의 인식에 불만을 품은 유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냄. 유자와 총수 간의 직접적인⁽⁰²⁾을 유발함.
--	--

03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총수의 성격

비단잉어 소중하게 여김.	한국 서사 문학의 전통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보다 물고기를 대우하는 모습에서⁽⁰¹⁾면모가 드러남. 고상한 척하며 비단잉어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에서⁽⁰²⁾이 드러남.
직원 및 유자 고압적이고 비인간적 태도로 대함.	

• 유자소전(이문구)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세태 소설
제재	유자(兪子)의 일대기
성격	비판적, 해학적, 풍자적, 전기(傳記)적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전지적 작가 시점 혼용)
배경	1970년대 서울
특징	① 전통적 '전'의 양식을 차용함. ② 사투리와 비속어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주제	유자의 인격적 면모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 비판

01 다음 설명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1) '나'는 이 글의 (주인공 / 서술자)(으)로 유재필과 어릴적 고향 친구이다.
- (2) '나'는 유재필에 대한 (존경 / 비판)의 의미로 그를 '유자(兪子)'라 부른다.
- (3) 이 작품은 (비속어 / 고상한 말투)를 사용하여 주인공을 친근하게 드러내고 비판의 대상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 (4) 충수가 (비단잉어 / 유자)를 소중하게 대하고, (비단잉어 / 유자)에게는 고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통해 충수의 위선적 면모가 강조된다.

02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유자소전'이란 제목을 통해 이 소설이 한 인물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 (2) 유자는 충수의 승용차 운전수로서의 어려움을 제보하기 위해 잡지사와 연락하여 '나'를 찾아왔다. (○, ×)
- (3) 충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값비싼 가격의 수입 고기인 비단잉어를 구입하였다.

(○, ×)

- (4) 유자가 비단잉어의 폐사 원인을 몸살과 과로라고 대답한 것은 충수를 비꼬기 위함이다.

(○, ×)

- (5) 분기탱천한 충수는 비단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유자를 자녀들 등하교용 운전수로 좌천시켰다. (○, ×)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쭉밭에서 우뚝하였다.
- ㉡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 그는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 ㉢ “뱀어낸메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러서 허구, 차에 코폴구 싶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러서 허구.”

- (1) 이 작품이 삽화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2) 주인공에 대한 서술자의 예찬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
- (3)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며 대상에 대한 못마땅한 심리를 드러낸다. ()

어휘 체크

04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1) 숫지다 | • | • ㉠ 어울리지 않고 존스러움. |
| (2) 귀꿈맞다 | • | • ㉡ 겉과 달리 속으로 엉큼함. |
| (3) 의뎡 | • | • ㉢ 순박하고 두터움. |
| (4) 칫살맞다 | • | • ㉣ 언행이 알맞고 잘고 더러움. |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자소전(이문구)

1970년, 내가 지금의 세종 문화 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 회관의 문인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어름이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10년도 넘어 된 해후였다. 이산(怡山)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 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글이라고 꼬덕거려 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작가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에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에는 그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대학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동생을 내게 중매해 봤으면 하고 찾아본 것이었다.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뉘인지 먹일 뉘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해가 바뀌어 그 누이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하였다. 그는 처음 만났던 날 저녁에 내가 말술을 마시고도 양에 안 차 하는 데에 질려서 ㉡대번에 가위표를 쳐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다 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史記)”를 한 질 주었더니, 그 후부터는 올 때마다 책담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루 ㉢주체를 못 하도록 더미로 답쌓이기 마련이었다. 그는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그 책 더미를 훑어 갔다. 장근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또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의 경우에 속하였다.

하루는 어디로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 보라고 하기에 물어 물어 찾아갔더니, 귀꿈맞게도 봉어니 메기니 하고 민물고기roman 술상을 보는

후미진 대폿집이었다.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으나, 그는 흙탕 내도 아니고 시궁 내도 아닌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었다.

“허울 좋은 하눌타리지, 수챗구녕 내가 나서 워디 먹졌나, 이까짓 냄새가 뭐시 그리워서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 원 참, 취미두 별 움둑가지 같은 취미 다 있구먼.”

내가 사뭇 마뜩잖아했더니,

“그래두 좀 구적구적헌 디서 사는 고기가 하꾸라이 버덤은 맛이 낫어.”

하면서 그날사 말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자기 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써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먼.”

“있다면 있구 읍다면 읍는디, 들어 불라남?”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객관적 시각으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중심 인물에 얹힌 일화를 나열하여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적 갈등과 그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02 윗글을 통해 상상한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잡지사에서 유자와 ‘나’가 만나는 모습
- ②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고 있는 유자의 모습
- ③ ‘나’에게 자신의 누이동생을 소개하는 유자의 모습
- ④ 후미진 대폿집에서 마주 앉아 있는 ‘나’와 유자의 모습
- ⑤ 민물고기 요리가 나오자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나’의 모습

03 윗글에 나타난 ‘나’와 유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유자는 오랜만에 재회한 친구이다.
- ② ‘나’와 유자는 자주 술잔을 기울이는 친구이다.
- ③ ‘나’는 유자의 사연을 들어 주는 좋은 상대이다.
- ④ ‘나’는 경험을 통해 유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 ⑤ 독서광인 유자는 ‘나’의 책을 좋아하는 독자이다.

04 ㉠~㉣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인색한 사람인지 아닌지
- ② ㉡: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 ③ ㉢: 가득 쌓여 둘 곳이 없을 정도이다.
- ④ ㉣: 흔치 않은 일이었다.
- ⑤ ㉤: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경우이다.

05 **주관식** <보기>와 같은 효과를 주는 윗글의 서술상 특징을 3어절로 쓰시오.

- |보기|
-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을 획득함.
 - 주인공을 친근하게 느끼게 함.

[0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자소전(이문구)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 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 그러?”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먼그러. ㉡뽕어낸메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허구, 차에코폴구실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로 못추는 춤이 읊는 순전 판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 봤구먼.”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켜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뉘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뽕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

이를 하러 드는 것이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客苦)가 쌓여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디다가 부릇
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립다 취
됐으니께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
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
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
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
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0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과 서술자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대립적인 인물형을 제시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07 고난도 다음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중, 윗글에 나타난 총수에 대한 유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보리밥 쫄면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고 있노라.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일이 있겠느냐.
- 윤선도, ‘만홍’
- ②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 윤선도, ‘오우가’

- ③ 이고 진 저 노인네 짐 풀어서 나를 주시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고 무겁겠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셔야 되겠소이까.
- 정철
- ④ 마음이 어리석은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구름이 겹겹이 쌓인 산에 어느 임이 오겠냐마는.
떨어지는 잎 불어오는 바람에 행여 그 사람인가 하노라.
- 서경덕
- 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더미 위에 뛰어올라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 있어서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리다가 두엄 더미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내가 날래기 망정이지 명이 들뻔 했구나.
- 작자 미상

0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자가 비단잉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 물고기에게도 클래식을 들려줄 만큼 교양 있는 총수의 성품이 드러난다.
- ③ ㉢: 비단잉어가 감기로 인해 죽었다는 엉뚱한 말로 웃음을 유발한다.
- ④ ㉣: 값비싼 비단잉어를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 ⑤ ㉤: 비단잉어에 대한 총수의 태도에 불만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9 ㉔와 표현 및 발상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매아미 땀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 ②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 ③ 먼 옛날 만주에 개 타고 말 장수 하던 시절
- ④ 울고 나니 곡성(谷城) 원님, 운수 좋다 강진 원님
- ⑤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은 피리, 봉우리, 광주리, 유리 향아리

10 서술형 ㉔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5점]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자소전(이문구)

총수는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 기사, 어제 ㉑그 고기들은 어떡했나?”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디, 아까워서 그냥 내뺀지기두 거시기하구, ㉒비싼 고기는 맛두 괜찮겠다 싶기두 허구…… 게 비늘을 대강 긁어서 된장끼 줌 허구, 꼬치장두 줌 풀구, 마늘두 서너통 다져 놓구, 멸국두 줌 있게 지져서 한 고뿌덜씩 했지유.”

“뭇이 어찌구 어째?”

“왜유?”

“왜애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憤氣撐天)하여 부찌지를 못하였다.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달리 처리할 방법두 읊잖은감유.”

총수의 성깔을 덩뜨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달은 거였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㉓아랫것들하고 따따부따해 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㉔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 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해서 처먹어 버려? 에이…… 에이…… 피두 눈물도 없는 독종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 지저 먹어 보니 맛이 워똥타?”

내가 물은 말이였다.

“워똥기는 뭤가 워똥…… 살이라구 허벅허벅헌 것이, 별맛도 읊더구만그러.”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㉕“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인다…… 좌우지간 맛대加里 읊는 ㉖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 육을 두 사발이나 먹구 났더니, 지금지금허구 해감내가 나더래두 이런 봉어지지미 생각이 절루 나길래 예까장 나오라구 했던겨.”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잉어를 나눠 먹었음 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녀들 등 · 하교용 승용차 운전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조석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㉗비단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 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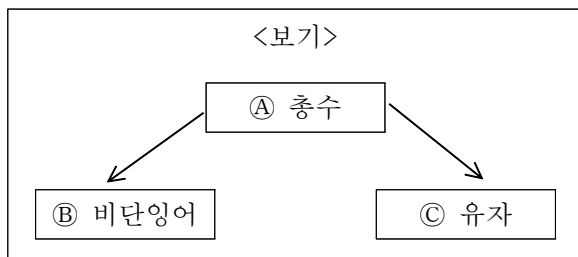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남들은 그를 소속 운전수들의 정상(頂上)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올려다보고들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주야로 모셔 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매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직살맞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1 윗글의 총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원들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한다.
- ② 자신의 건강과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③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다.
- ④ 값비싼 비단잉어가 어떤 맛일지 궁금해한다.
- ⑤ 죽은 비단잉어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생명을 중시한다.

12 윗글의 인물과 소재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에게 동경의 대상이다.
- ② ㉠은 ㉣가 ㉡를 대하는 태도에 공감하고 있다.
- ③ ㉡는 ㉠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와 ㉣를 대하는 ㉠의 태도 차이는 작품의 주제와 연결된다.
- ⑤ ㉡는 ㉠가 추구하는 가치와 대립하고, ㉣가 추구하는 가치와 대응한다.

13 ㉠~㉣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4 유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능청스럽고 엉뚱한 말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총수의 심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의문을 떨고 있다.
- ③ 총수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④ 비아냥거리는 말로 총수를 해학적으로 비꼬고 비판하고 있다.
- ⑤ 총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5 ㉠에 담긴 의미와 가장 어울리는 속담은?

- ① 꼬리가 길면 밟힌다.
- ②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③ 남의 것을 마 베어 먹듯 한다.
- ④ 가마 밑이 노구슬 밑을 겹다고 한다.
- ⑤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지하면서도 해학적이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에 영향을 준다.
- ③ 인물에 대한 풍자와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다.
- ④ 직원들이 총수에게 반감을 갖는 계기가 된다.
- ⑤ 유자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사건이다.

[2017 교육청 7월 고3]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뱀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홀기 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 그려?”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 채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늑트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A]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 그려. 뱀어낸메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폴구싫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전판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 봤구먼.”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게 뒤집어진 채로 떠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켜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났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뿔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뭘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라 가지루다 객고(客苦)가 썩어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디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더럽다 취했으니께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불상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췌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B]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져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열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안 당게 고양이 안 당게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뽕(부엌)에 제우(겨우) 지랑(간장)뽕이 얹으니 뽕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든 뽕술에 찌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너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 볼 만혈쥬.”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 배참: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함.
* 여투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 드티다: 밀리거나 비켜나거나 하여 약간 틈이 생기다.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 ② ‘노파’는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스페어 운전수’들은 그들의 자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별이가 좋았다.
- ④ ‘총수’는 비단잉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한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수’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0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자소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와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체를 사용했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유자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군.
- ②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유자에 얹힌 일화들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

[01~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제망매가(월명사)
(나)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다) 관동별곡(정철)

(가) 생사 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 간
(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다) ㉢영동(營中)이 무사(無事)하고 시절(時節)이
삼월(三月)인 제,

화천(花川) 시내길히 풍악(楓岳)으로 버더 있다.

㉣행장(行裝)을 다 썰티고 석경(石徑)의 막대
디퍼,

백천동(百川洞) 겨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러
가니,

은(銀) 닻 무지게 옥(玉) 닻 룡(龍)의 초리,

〔 〕 첫돌며 썸는 소리 십(十) 리(里)의 즈자시
[A] 니,

〔 〕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덕(金剛臺) 밍 우층(層)의 선학(仙鶴)이 샷
기 치니,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즈음을 켜듯던디,

〔 〕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B] 쓰니,

〔 〕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
〔 〕 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
고,

정양스(正陽寺) 진혈덕(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
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괴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논 듯 백옥(白玉)을 못것논
듯,

동명(東溟)을 박춘논 듯 북극(北極)을 괴왔논
듯.

눅홀시고 망고덕(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
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닻트니 췌 잇는가.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 ① (가)와 (나)에는 공통적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대상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나)는 화자가 살고 있는 특정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다)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
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와 색채어를 활
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와 (다)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자연과의
거리를 좁혀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
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① ㉠: 대상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닥쳐 온 애사
(哀事)였음을 드러낸다.
- ② ㉡: 시적 대상이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
이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③ ㉢: 화자가 자연의 풍광과 조화를 이루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화자가 간편한 차림새로 유람에 나섰음
을 알 수 있다.
- ⑤ ㉤: 여러 산의 변화무쌍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03 (가)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관(棺)이 내렸다.
깊은 가슴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 주고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兄)님!
불렀다.
오오나.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내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 박목월, '하관'

- ① (가)에서 '한 가지'는 시적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 ② <보기>에서 '꿈'은 화자로 하여금 소통감과 단절감을 함께 느끼게 한다.
- ③ (가)에는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보기>에는 기독교적 색채가 드러난다.
- ④ 화자의 상황과 처지가 (가)에서는 직접적으로, <보기>에서는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 ⑤ (가)는 죽은 이와 재회를 기약하고 있으며, <보기>는 죽음을 단절로 인식하고 있다.

04 **서술형** ㉠과 ㉡의 관계를 암시하는 시어를 (가)에서 찾고, 이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이들의 관계를 쓰시오. [5점]

05 **주관식** <보기>는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다고 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한국 시가 문학은 민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시적이고 집단적인 노래인 고대 가요에서 시작하여 향가, 고려 가요, 시조, 가사 등으로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의 현대 시는 이러한 전통 시가의 내용과 형식을 계승하거나 변용하고 있다. 한국 시가 문학은 형식 면에서는 3음보 또는 ()의 민요 율격을 갈래에 따라 발현하였으며, 10구체 향가에서 이룩한 3단 의미 구조의 형식을 시조에까지 이어 왔다. 내용 면에서는 인간을 존중하며 현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 친화적 삶을 지향하였다.

06 (다)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ㄱ. 계절적 배경은 단풍이 든 가을로, 장소는 금강산 부근이 좋겠어.
ㄴ. 거대한 폭포를 구경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필요하겠어.
ㄷ. 높은 곳에서 크기가 다양한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도 필요해.
ㄹ. 망고대와 혈망봉의 거대함에 대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07 [A]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은?

- ①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 김종길, '성탄제'
- ② 맑은 하늘에 /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
- 이수복, '봄비'
- ③ 물새알은 간간하고 짹조름한 미역 냄새
- 박목월, '물새알 산새알'
- ④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 이육사, '광야'
- ⑤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開闢)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08 **서술형** <보기>를 참고하여 [B]의 의미를 밝혀 쓰시오. [5점]

<보기>

송나라 사람 임포(林逋)는 서호에 은거하며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여기며 살았다. 그가 학을 날리면 은 구름 속으로 날아올라 선회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09 ㉓~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와 ㉓는, ㉓와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② ㉓는 화자에게 슬픔을 던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 ③ ㉓는 화자가 오랜 기간 꿈꾸어 왔던 공간이다.
- ④ ㉓는 화자가 방황과 모색을 마무리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⑤ ㉓에 비해 ㉓가 도달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0~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황진이)
(나) 관동별곡(정철)
(다) 유자소전(이문구)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㉔밭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나) 텃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울은말이,
바다 밋근 하늘이니 하늘 밋근 므서신고.
긋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㉕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느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녹합(六合)의 느리느
듯,

오월(五月) 당텃(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저근뎡 ㉖밭이 드러 풍낭(風浪)이 텃(定)헛거
늘,

부상(扶桑) 지척(咫尺)의 명월(明月)을 기다리
니,

서광(瑞光) 천당(千丈)이 뵈느 듯 숨느고야.
주렴(珠簾)을 고터 것고 옥계(玉階)를 다시 쓸
며,

계명성(啓明星) 듯도록 곳초 안자 브라보니,
백년화(白蓮花) 흔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중략)

송근(松根)을 베여 누어 ㉗꽃줍을 얼핏 드니,
썸애 흔 사름이 날드려 닐온 말이,
그딴를 내 모르랴 ㉘상계(上界)에 진선(眞仙)
이라.

㉙황텃경(黃庭經) 일즈(一字)를 엇디 그릇 닐
거 두고,

인간(人間)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오느다.
저근뎡 가디 마오 이 술 흔 잔 머거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희슈(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㉚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헛야 낭익(兩腋)을 추
혀드니,

㉛구만(九萬) 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
리로다.

(다) “그리, 지저 먹어 보니 맛이 워똥타?”

내가 물은 말이었다.

“위뎡기는 꿩가 위뎡…… 살이라구 허벅허벅
헌 것이, 별맛도 읊더구만그려.”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이다…… 좌우지간
맛대가리 읊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
육을 두 사발이나 먹구 났더니, 지금지금허구
해감내가 나더래두 이런 봉어 지지미 생각이
절루 나길래 예까장 나오라구 했던겨.”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잉어를 나
뉘 먹었음 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
부며, 자녀들 등 · 하교용 승용차 운전수며, 자
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조석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비단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
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수들
의 정상(頂上)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
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올려다
보고들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
[A] 털뚱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
하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주야로 모
셔 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
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매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맞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음보를 취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다)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③ (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역설의 방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연물을 특정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다)는 사투리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11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 개긔치 알미오
라.

뒤은 님 오며는 꼬리를 뽀뽀 치며 썩락 님
리 썩락 반겨서 내뎡고 고은 님 오며는 뒤발
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
라가게 혼다.

쥔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
라.

- ① <보기>는 (가)에 비해 형식의 면에서 자유롭다.
- ② (가)와 <보기>는 공통적으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 ③ (가)와 <보기>는 공통적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보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가)는 추상적 개념을 사물화시킨 문학적 발상이 돋보인다.

12 고난도 시적 상황이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
시비(柴扉)를 여지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 밤등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하
노라. - 신희
- ②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
魚) | 안주로다 / 이 몸이 한가(閑暇)함오도
역군은(亦君恩) 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제1수>
- ③ 이화우(梨花雨)우 훗쑤릴 제 울며 잡고 이별
(離別)흔 님 /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 천 리(千里)에 외로운 쑤만 오락
가락 함노매. - 계랑
- ④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單手)를 네 뎡고 이
제 보니 / 도화(桃花) 뜯 물에 산영(山影)조
츄 잠겨세라. /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는 옌가 함노라. - 조식
- ⑤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
로다. /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
슨 명월(明月)이라. / 이 중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늣으리라. - 성혼

13 **주관식** (나)에서 파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14 **수능형** 밑줄 친 시어와 화자의 관계가, (나)의 화자와 ㉠의 관계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방(房) 안에 헛는 촉(燭)불 놀과 이별(離別) 하엿관대 / 짓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 르는고. / 더 촉(燭)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르노라. - 이개
- ② 공산(公山)에 우난 접동, 너난 어이 우짖난 다. / 저도 날과 같이 무음 이별하였나냐. / 아모리 피나게 운들 대답이나 하더냐. - 박효관
- ③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내 끼 인제 /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뵈 배만 매엿 난고 / 석양에 짝 일흔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노매. - 조현
- ④ 압못세 든 고기들아 뉘라서 너를 모라다가 녀 거늘 든다 / 북해청소(北海淸邵)를 어디 두고 이 못세 와 든다 / 들고도 못 나는 정(情)은 네오 너오 다르랴. - 작자 미상
- ⑤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굶고 서서 / 찬바람 진 서리를 새도록 맞을망정 / 인간의 이별을 모르니 그를 부러워하노라. - 정철

15 (다)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자는 지금 붕어 요리를 먹고 있다.
- ② 해감내를 좋아하는 것은 흔한 취향이다.
- ③ 서술자인 ‘나’는 비단잉어를 즐겨 먹는다.
- ④ 유자는 총수에게 말종이라는 말을 들었다.
- ⑤ 유자는 그룹 소속 정상의 운전수라는 자부심이 있다.

16 (다)의 유자의 성품과 어울리는 시조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오백 년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 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 되 인걸(人傑)은 간디엿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흐노라. - 길재
- ② 눈 믈자 휘여진 덕을 뉘라서 굶다턴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썸인가 흐노라. - 원천석
- ③ 백설(白雪)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매화논 어늬 곳에 띄엿논고.
석양에 홀로 셔 이셔 갈 곳 몰라 흐노라. - 이색
- ④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劑)를 한 (恨)흐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헤 닛드니. - 성삼문
- ⑤ 가마귀 빠호논 골에 백로(白鷺) | 야 가지마 라.
성넨 가마귀 흰빛출 새오나니
청강(淸江)에 종이 시슨 몸을 더러일까 흐노라. - 정몽주의 어머니

17 (다)에 반영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폐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연대 활동
- ② 도시민들의 경제적 궁핍과 경제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
- ③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평등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
- ④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모색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 ⑤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른 혼란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진 몰인정한 세태

18 ㉠~㉥ 중, 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9 [서술형] ㉡와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5점]

- (1) 공통점: _____
- (2) 차이점: _____

[20~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유자소전(이문구)
(나) 사과를 먹으며(함민복)

(가)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뚫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중략)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 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떡했나?”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디, 아까워서 그냥 내뺀지기도 거시기허구, 비싼 고기는 맛두 괜찮겠다 싶기도 허구…… 게비늘을 대강 굽어서 된장찌 좀 허구, 꼬치장두 좀 풀구, 마늘두 서너통 다져 놓구, 멸국두 좀 있게 지져서 한 고뿌덜씩 했지유.”

“뭇이 어찌구 어째?”

“왜유?”

“왜애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憤氣撐天)하여 부찌지를 못하였다.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달리 처리할 방법두 읊잖은감유.”

총수의 성깔을 덧들이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달은 거였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랫것들하고 따따부따해 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 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해서 처먹어버려? 에이…… 에이…… 피두 눈물두 없는 독종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나)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드러난다.
- ⑤ (가)에서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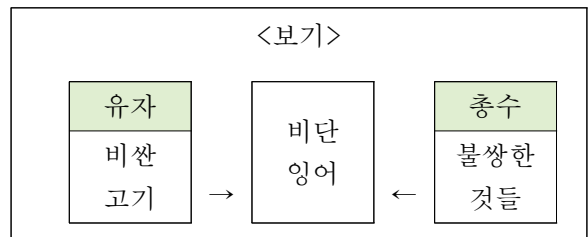
21 <보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가)에 해당되는 한국 서사 문학의 전통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 2개)

<보기>

한국 서사 문학은 인물과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는 선악을 대표하는 대립적 인물 간 갈등 관계나 영웅의 일생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난다. 또한 대상을 악의 없는 웃음으로 그려 내는 해학, 부정적 현상이나 인물 등을 희화화하여 비판하는 풍자도 서사 문학의 전통적 특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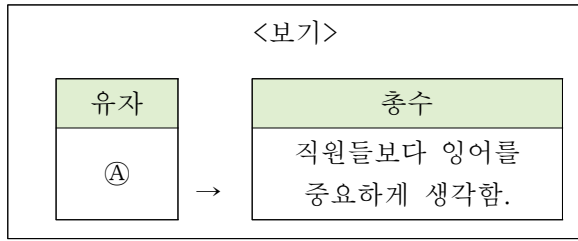
- ① 풍자의 정신
- ② 권선징악적 주제
- ③ 대상에 대한 해학
- ④ 멋과 신명을 추구하는 미의식
- ⑤ 영웅의 일생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

22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 글의 주된 갈등 양상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은?



- ① 두 개의 가치를 놓고 선택하지 못하는 인물 내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개인이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방해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서로 다른 관점을 놓고 대립하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인물의 확고한 가치관과 그것을 제약하는 사회 관습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인물의 본능적인 욕구와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군.

23 (가)의 대화 양상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수의 화를 돋우기 위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함.
- ② 총수의 생각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반성하도록 훈계함.
- ③ 총수의 반응을 넘지시 떠보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함.
- ④ 총수가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을 털어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함.
- ⑤ 총수의 속상한 심정을 알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음.

24 운율 형성 방식이 (나)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어제도 하로밤 /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와가와 울며 새였소. - 김소월, '길'
- ② 산은 / 구강산
보랏빛 석산 - 박목월, '산도화'
- ③ 산 너머 /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④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 이육사, '청포도'
- 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조국
우리들의 겨레는 우리들의 겨레
- 박두진, '3월 1일의 하늘'

25 <보기>는 (나)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나)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1~2행	3~9행	10~12 행	13~19 행	20~24 행
㉠	㉡	㉢	㉣	㉤

- ① ㉠에서 '사과'는 '사과나무'의 일부로 확장되고 있어요.
- ② ㉡의 소재들은 '사과'를 존재하게 한 자연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 ③ ㉢의 '식물학자'와 '사과나무 집 딸'은 자연물인 '사과'와 대립되는 존재들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 ④ ㉡와 ㉢의 내용이 ㉤로 연결되면서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요.
- ⑤ ㉤는 '흙에서 도망 ↔ 흙으로 귀환', '사과를 먹음 ↔ 사과가 먹음'이라는 순환론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26 **서술형** ㉠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의 관점에서 (가)의 총수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8점]

- (1) ㉠의 의미: _____
- (2) (가)의 총수의 태도 비판: _____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제망매가(월명사)
 (나)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다)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황진이)
 (라) 사과를 먹으며(함민복)

(가) 생사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님아 기다리겠노라.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 간
 (草廬三間) 지여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쳐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
 라.

(다)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
 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라)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
 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
 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27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물과 비교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② 시적 화자는 대상과의 만남을 지향하고 있
다.
- ③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
어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
- ⑤ 사물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드러
내고 있다.

28 (나)와 (라)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및 정서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라)의 화자는 모두 삶의 무상감을 느
끼고 있다.
- ② (나)와 (라)의 화자는 모두 자연 친화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 ③ (나)와 (라)의 화자는 모두 목표를 상실하고
내적 방향을 꺾고 있다.
- ④ (나)와 (라)의 화자는 모두 부정적 현실과의
대결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⑤ (나)와 (라)의 화자는 모두 과거의 삶으로 회
귀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29 <보기>는 (가)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에 들어 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0구체 향가는 ‘4(기)+4(서)+2(결)’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구의 첫머리에는 ‘아으’와 같은 감탄사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감탄사로 시작되는 9~10구(결구)를 ‘낙구’라고 한다. ‘낙구’는 우리 시가의 형식적, 전통적 특질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형태가 향가에서부터 이후 등장하는 ‘시조’, ‘가사’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구는 (㉠)역할을 한다.

- ① 시의 주제를 암시하는
- ②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 ③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시키는
- ④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 ⑤ 리듬감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고조시키는

30 (라)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ㄱ. ‘사과’는 하나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ㄴ. 이 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어넣고 있어.

ㄷ. 대상에 대한 연민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낭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야.

ㄹ. 화자가 생각하는 바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1 **주관식** (라)에서 창작의 동기이자 사유의 출발점이 되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32 **서술형** <보기>와 유사한 태도가 드러나는 시구를 (가)에서 찾아 쓰고, (가)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8점]

<보기>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1) 유사한 태도가 드러난 시구: _____

(2) 공통적인 태도: _____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1) 국어의 변천과 발전

① 국어의 변천

② 한국어의 언어 활력

01 활동&정리①

(1) 국어의 변천과 발전

① 국어의 변천

학년 | 반 | 번 | 이름 | 점수

단원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 (1) 국어의 변천과 발전	교과서	338~340쪽
학습 주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알고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알고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한다.		

0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음운 · 표기상의 차이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음 체계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이 확립되었음. ‘ㄹ’, ‘ㄷ’, ‘ㄴ’과 같은 음운과 문자가 존재하였음. ‘ㅼ’, ‘ㅽ’, ‘ㅼ’ 등에서와 같이 (⁰¹)이 존재하였음. ‘ㅼ, ㅽ’가 (⁰²)으로 발음되었음.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잘 지켜졌음. 비분절 음운으로 성조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⁰³)을 찍어 표기하였음. 이어 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었음. 음절 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발음되었으며, 받침에도 이 여덟 글자를 적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음 체계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존재함. ‘ㄹ’, ‘ㄷ’, ‘ㄴ’과 같은 음운과 문자가 사라짐.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지 않음. ‘ㅼ, ㅽ’가 (⁰⁴)으로 발음됨. 모음 조화가 중세 국어에 비해 잘 지켜지지 않음. 비분절 음운으로 음의 길이가 존재함. 끊어 적기를 함. 음절 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발음되나, 표기를 할 때에는 형태소의 본 형태를 밝혀서 적음.

0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상의 차이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국어에 비해 (⁰¹)의 비중이 컸음. 예) ㄱ롭, 뵈, 온, 즈믄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에서 온 외래어가 존재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세 국어에서 사용되던 고유어들 중 (⁰²)로 대체된 것들이 많음. 서구에서 온 외래어가 많음. 중세 국어와 어휘의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 많음.

0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문법상의 차이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격 조사 ‘(⁰¹)’만 존재하였음. 명사형 어미 ‘(⁰²)’이 사용되었으며, ‘-기’는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음.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⁰³)’를 통해 실현되었음. (⁰⁴)은 선어말 어미 ‘-습-/-줍-/-습-’을 통해 실현되었음.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과 ‘-이-’, ‘-잇-’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격 조사 ‘이/가’, ‘께서’ 등이 사용됨. 명사형 어미 ‘-(으)ㅁ’, ‘-기’가 사용됨.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실현됨. 객체 높임법은 ‘뵈다,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됨.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며,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는 없음.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중세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 ‘-기’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 ×)
- (2) 중세 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 개의 자음을 연이어 발음할 수 있었다. (○, ×)
- (3) 중세 국어에도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 존재하였다. (○, ×)
- (4)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 말에서 ‘ㄷ’과 ‘ㅅ’의 발음을 구분할 수 없었다. (○, ×)
- (5) 중세 국어에서의 고유어의 비중은 현대 국어보다 적었다. (○, ×)
- (6)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 ‘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 ×)
- (7) 중세 국어에서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 ×)
- (8)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만 존재하였고, 된소리는 현대에 와서야 생겨났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중세 국어에서 ‘내, 내’는 (단모음 /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었다.
- (2) 중세 국어에서 ‘싸다’는 ‘(값이 저렴하다. / 값이 적절하다. / 값이 나가다.)’라는 뜻이었다.
- (3) 중세 국어에서 ‘분[筆]’과 ‘먹[墨]’은 (중국어 / 몽골어 / 여진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 (4) 중세 국어에서 자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 ‘(이 / ㅏ / ㅓ)’가 실현되었다.

03 <보기>에 주어진 문법 요소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형태를 쓰시오.

<보기> -음, -음, -기, -시-, -샤-, -이, -잇, -습, -줍, -습

- (1)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졌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 ‘()’은 양성 모음 뒤에, ‘()’은 음성 모음 뒤에 결합하였다.
- (2) 중세 국어에도 명사형 어미 ‘()’가 존재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처럼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 (3)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 (), ()’이 존재하였는데, 현대 국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 (4) 중세 국어에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와 ‘-샤-’가 있었는데, ‘오시니잇고’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 ‘니르샤딕’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가 사용되었다.

어휘 체크

04 다음의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 | | | |
|---------------------------------------|-------------|--|
| (1) 어두 자음군
(2) 모음 조화
(3) 명사형 어미 | •
•
• | ㉠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 문장에서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 |
|---------------------------------------|-------------|--|

단원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 (1) 국어의 변천과 발전	교과서	347~349쪽
학습 주제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읽고 한국어의 위상을 안다.		
학습 목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01 언어 활력의 개념과 평가 요소

(1) 언어 활력의 개념: 언어의 발전 정도

(2)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

인구 자산	(⁰¹)의 수효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어 활력이 높음.
경제 자산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며, 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 활력이 높음. 무역의 규모, 인구 1인당 국민 소득 등이 관계됨.
정치 자산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가 높을수록 언어 활력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함.
문화 자산	교육적·학문적·예술적 성취를 가리키며, 이러한 성취가 높을수록 언어 활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함.

02 한국어의 언어 활력

인구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기준 한국어 사용 인구가 약 8천만 명으로 세계 12위에 이름.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이 되었음.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누적 응시자 수가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음.
경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 내고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음.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들어가는 '20-50 클럽'에 2012년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함.
정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문화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만년 동안 고유문화를 보전해 왔으며,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음. (⁰¹)로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음. 2015년 기준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의 세계 유산으로 12개가 등재되었으며, "훈민정음해례본"을 포함하여 13개의 (⁰²)이 등재되어 있음.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음. 국제 연합 산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2007년 한국어를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에 따른 (⁰³) 10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함.

03 한국어의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가정, 교실,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국어 사용에 대해 성찰해야 함.	+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⁰¹)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한국어를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함.
--	---	---	---	-----------------------------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한국어는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사용하는 국제 공개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 ×)
- (2)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 ×)
- (3)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 중 인구 자산은 언어 인구의 수효를 말한다. (○, ×)
- (4) 언어 활력은 국가의 경제 규모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 (○, ×)
- (5)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정도도 언어 활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 ×)
- (6)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과 한국어의 언어 활력은 관계가 없다. (○, ×)
- (7) 교육적·학문적·예술적 성취도 한 언어의 언어 활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 ×)
- (8)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문맹률이 약 80%에 이르렀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한국어의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에 이른 것은 한국어의 (인구 자산 / 경제 자산 / 정치 자산 / 문화 자산)에 해당한다.
- (2)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 민주주의 지수에서 22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인구 자산 / 경제 자산 / 정치 자산 / 문화 자산)에 해당한다.
- (3)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이상의 인가로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들어가는 ‘20-50 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했는데 이는 한국어의 (인구 자산 / 경제 자산 / 정치 자산 / 문화 자산)에 해당한다.

03 다음 내용과 관련된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를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 |
|---------|---------|
| ㉠ 인구 자산 | ㉡ 경제 자산 |
| ㉢ 정치 자산 | ㉣ 문화 자산 |

- (1) 최근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
- (2) 국제 연합의 6대 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는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 언어 활력이 높다. ()
- (3)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 내었고,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
- (4) 영국의 한 주간지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를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다섯 개 분야로 평가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한다. ()

어휘 체크

04 다음의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 | | | |
|--------|---|--|
| (1) 문맹 | • | •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 (2) 활력 | • | • ㉡ 청원이나 원서를 냄. |
| (3) 위상 | • | • ㉢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을 모름. 또는 그런 사람. |
| (4) 출원 | • | • ㉣ 살아 움직이는 힘. |
| (5) 자산 | • | • ㉤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01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世·성宗宗御·영製·정訓·훈민정正·정음
나·랏 ㉠:말·쓰·미 中·등國·국·에 달·아 文·문
字·종·와·로 서·르 ㉡:스·못·디 아·니·홀·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저 ·홍
㉢:배·이·셔·도 ㅁ·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물·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윙
·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甞·ᄒ·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편·안·한·키 ㅎ·고·저 ㅎ
ㅅ·르·미·니·라

-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제 서문’

- ① ㉠: 이어 적기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② ㉡: 8종성법이 적용되었다.
③ ㉢: 모음 뒤에는 주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 어두에서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있었다.
⑤ ㉤: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다.

02 [서술형] ㉠과 ㉡의 기능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8점]

耶·양·輸·승 | ……(목련드려) 世·성·尊·존·人 安
한·否·불 :물·좁·고 니·르·㉠:샤·디·므·스·므·라 ·오
시·니 ㉡:잇·고 - “석보상절(釋譜詳節) 권6” 중에서

| 현대어 풀이 |

야수가 ……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
쭙고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조건>

㉠과 ㉡의 문법적 기능과 관계된 대상을 밝
힐 것

고난도

03 [수능형]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하·산 漢水
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하·샤 卜年
(복년)·이 :ᄒ :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
민)·하·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낙수)·에 山行(산
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125장

| 현대어 풀이 |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에 걸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
어[開]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
성을 다스림에 부지런하셔야 더욱 굳으시겠
습니다.

임금이여, 아소서. 태강왕(泰康王)처럼 낙
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조
상)만 믿으셨습니까?

- ①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② 중세 국어의 ‘하나비’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가 변해 현대 국어에서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 ‘○’, ‘·’와 같은 문자를 사용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 적기 방식을 사용한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와 ‘-잇-’를 사용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04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 국어보다 컸다.
- ② ‘쓰다’처럼 중세 국어에서 쓰이던 것과 의미가 달라진 어휘가 있다.
- ③ 중세 국어에는 몽골어와 여진어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있었다.
- ④ 현대 국어의 ‘붓’, ‘떡’과 같은 단어는 중세 국어 시기에 중국어에서 들어온 외래어이다.
- ⑤ ‘강’, ‘산’ 등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 사용하던 단어들 중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바뀐 단어들이 존재한다.

[05 ~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먼저 인구 자산은 언어 인구의 수효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어 활력이 높다. 국제 연합(UN)의 6대 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는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 언어 활력이 높다. 힌디어, 포르투갈어, 벵골어, 일본어도 모어(母語) 사용자 수에 따른 언어 순위에서 사용 인구가 1억 명을 넘으며 10위 안에 들고 있다. 우리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에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이 되었고,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 시험(TOPIK)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다.

(중략)

문화 자산은 교육적 · 학문적 · 예술적 성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고유문화를 보전해 왔고,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한글문화로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2015년 기준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의 세계 유산으로 등재(登

載)된 것도 열두 개가 있으며,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훈민정음해례본” 등 열세 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韓食)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국제 연합 산하(傘下)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2007년 제43차 총회에서 183개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에 따른 국제 공개어 열 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국제 특허를 출원(出願)할 때 국제 공개어를 번역어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다.

05 윗글을 읽고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계인을 사로잡는 대중문화나 한식 등 한류 문화를 발전시켜야겠어.
- ② 출산 장려 정책을 펴서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야겠어.
- ③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도록 해야겠어.
- ④ 우리나라의 학문적 위상을 높여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도록 해야겠어.
- ⑤ 한국인들도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해서 언어 인구의 수효를 늘려야겠어.

06 [주관식] <보기>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와 관계 있는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어떤 나라 노래 들었어요. 그 노래가 어느 나라 것인지, 누가 지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 한국! 천천히 조금 더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어.

[2015 7월 교육청 B형]

0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자료〉

중세 국어의 ‘-습-/-줍-/-습-’은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상대 높임은 선어말어미 ‘-이-’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로 높임이 실현되기도 했다.

[중세 국어] 聖子를 내㉠시니㉡이다

[현대 국어] (하늘이) 聖子(성자)를 내셨습
니다.

[중세 국어] 世尊존入 安한ㅅ불 묻㉔줍고

[현대 국어] 世尊(세존)의 安否(안부)를 여쭙고

[중세 국어] ㉔진지 오를 제 반드시

[현대 국어] 진지 올릴 때 반드시

〈학습 활동〉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

- ① ㉠: 주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② ㉡: 상대를 높이는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객체를 높이는 ‘-춤-’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밥’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⑤ ㉤ + ㉡: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2015 3월 교육청 B형]

02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 ㉠부테 目連(목련)이 드려 ㉡니르
샤딘]

[현대 국어] 부처가 목련에게 이르시되

[중세 국어] 耶輸(야수) | ㉔부터 使者(사자)
 왔다 ㉕드르시고

[현대 국어]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중세 국어] 내 쏘勝鬘(승만)이 聰明(총명)하
니 부터옷 ㉠보스ᄇᆞᆫ면

[현대 국어] 내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만
뵈면

- “석보상절”

- ①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고유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③ ㉢: 관형격 조사로 ‘의’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03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

나·라히 파망(破亡)하·니 :되·와 ㅁ·름썸잇·고
·жат·앗 보·미 ·플·와 나모:썸 기·팻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늣·므
를 썸·리게·코

여·희여·슈물 슬·후니 :새 ㅁ·스·물 :놀·래·나·다
봉화(烽火) | :석·드·를 니·세시·니

지·빋 음서(音書)·논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연해” 중에서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
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다.

- ① ‘보·미’는 현대 국어의 ‘봄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꺾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썸·리게’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ㅁ·스·물’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ㅁ’, ‘.’가 사용되었군.
- ⑤ ‘드·를’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

04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ㅅ’과 ‘ㅆ’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ㅁ’은 ‘ㅂ’과 ‘ㄷ’이, ‘ㅁ’은 ‘ㅂ’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철 표기(이어 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 :말·쓰·미 中·등·國·국·에 달·아 文·문·字·쥬·와·로 서·르 스·믈·디 아·니·홀·썸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홍·배
이·셔·도 ㅁ·츄·내 제 ·ㅅ·들 시·러 퍼·디
:믈·홍·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 字·쥬·를
밍·ㅁ·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편·安·안·키 하·고·져 홍·썸
르·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ㅅ·들’의 ‘ㅁ’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뿌·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01 다음 중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음을 위아래로 이어 쓴 형태의 글자가 존재했다.
- ②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③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며 의미를 분별하게 하는 방점이 존재했다.
- ④ 받침에는 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자음을 사용하였다.
- 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각 형태소를 밝혀 적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02~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世·宗宗御·營製·懲訓·肅民民正·정음품

나·랏 :말·쓰·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종
·와·로 서르 ㉠스·못·디 아·니·홀·씨·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배 이·셔
·도 ㅁ·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爲·윙 ·헝·야 ㉤어·엿·비 너
·겨 새·로 ·스·믈여·들 字·종·를·땡·ᄃ노·니 :사·릅
마·다 :히·여·수·비·니·겨 ·날·로 ·뿌·메 便·편·安·한
·키 헝·고·져 ㅅ·ㅅ·르·미·니·라

-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

02 [서술형] ‘스·못·디’의 기본형이 ‘스·못·다’임을 고려할 때, 이 단어에 적용된 종성 표기 방식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단, 이 방식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자음의 종류를 포함하여 쓸 것) [5점]

03 [수능형]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ㅅ·르·미·니·라’를 통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연철(連綴)]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랏 :말’을 통해 비분절 음운으로 기능하던 성조를 표시하는 데 방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쁘·들, ·뿌·메’를 통해 각자 병서가 초성에 오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품(音), ·빅·성, :수·비’를 통해 현대에 쓰이지 않았던 ‘ㅇ, ㅁ, ㅂ’ 등의 문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御·營製·懲’를 통해 형식 중성을 사용하여 한 자음을 표기하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4 [수능형] 윗글의 조사와 어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랏’으로 볼 때, 당시에는 ‘ㅅ’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中·동國·국·에’로 볼 때, 당시에는 ‘에’가 비교격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제’로 볼 때, 당시에는 주격 조사가 보이지 않는 영형태(Ø)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字·종·를’로 볼 때, 당시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를 중성으로 가진 ‘를’이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뿌·메’로 볼 때, 당시에는 ‘-음 /-음’이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수능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지만 현재는 사라진 사어(死語)이다.
- ② ㉡은 ‘어리석다’를 의미하던 단어였지만 의미가 이동되어 현재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을 지닌다.
- ③ ㉢의 ‘놈’은 ‘사람 전체’를 의미하다가 현재는 그 의미가 축소되어 주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 ④ ㉣의 ‘하다’는 ‘많다’를 의미했었지만 현재에는 ‘행동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되었다.
- ⑤ ㉤은 ‘불쌍하게’라는 의미의 단어였지만 의미가 이동되어 현재는 ‘예쁘게’라는 뜻을 지닌다.

0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불·휘 가·픈 남·근·브·래 아니 :뿔·씩·긋 :뎡·코
여·름 ·하·늑·니
:식·미 가·픈 ·므·른 ·ᄇ·ᄇ·래 아니 그·출·씩 :내
·히 이·러 바·르·래 ·가·늑·니

- ‘용비어천가’ 제2장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
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
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 ① ‘불·휘’는 ‘뿌리가’이므로 ‘불휘’ 뒤에 ㄹ(영형태)의 주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브·래’는 ‘브름’에 ‘애’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로 볼 수 있다.
- ③ ‘:뎡·코’는 ‘좋고’이므로 이 시기에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식·미’는 ‘샘이’이므로 ‘:삼’ 뒤에 ‘이’ 형태의 주격 조사가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픈’, ‘므·른’은 ‘깊은’, ‘물은’이므로 이 시기에는 연철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수능형]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千歲(천세) 우·회 미·리 定(정)·ᄃᆞ·산 漢水北
(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ᄃᆞ·샤 卜年(복
년)·이 :ᄃᆞ :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사·샤·도 敬天勤民(경천근
민)·ᄃᆞ·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남·금·하 아 ·ᄃᆞ·쇼·셔 洛水(낙수)·에 山行(산
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용비어천가’ 제125장

|현대어 풀이|

천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에 걸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왕
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부지런하셔야 더욱 굳으시겠습니다.
임금이여, 아소서. 태강왕처럼 낙수에 사냥
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조상)만 믿으셨습니
까?

- ① ‘우·회’로 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는 경우 ‘ᄃᆞ’이 덧생기는 체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ᄃᆞ·샤’, ‘:업·스·시·니’로 볼 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샤-’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구드·시·리·이·다’로 볼 때,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남·금·하’로 볼 때, 중세에는 높임의 호격 조사로 ‘하’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미·드·니·잇·가’로 볼 때,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잇-’은 의문문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8 **수능형** <보기>에 나타난 높임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耶陽輸승 | ……(목련드려) 世·생尊존人 安
 관呑:불 :문죽·고 니르·샤 ·딤 므·스므·라 ·오
 시·니잇고 - “석보상절(釋譜詳節) 권6” 중에서

|현대어 풀이|

야수가 ……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
 꺾고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 ① ‘世·생尊존人’에서 높임의 대상에게 붙이는 관형격 조사 ‘人’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서술자는 세존을 높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문죽·고’를 볼 때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현대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객체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니르·샤·딤’에서 ‘-샤-’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주체인 목련을 높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오시·니잇·고’에서 ‘-시-’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야수는 문장의 주어인 목련을 높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오시·니잇·고’에서 ‘-잇-’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야수는 이 문장의 청자인 목련을 높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라고 해서 이 보편 법칙을 벗어날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즉, 모든 단어는 변화하며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한다.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다시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별적인 단어 하나하나도 변화하며 이런 변화의 물결이 모여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하는 것이다.

- (나) • 머리ㅎ
- 찰
 - 어리다: ‘어리석다’를 뜻함.
 - 수비(쉽다): ‘빙’의 형태로 활용됨.
 - 지서(짓다): ‘△’의 형태로 활용됨.

09 **주관식** (가)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인지 쓰시오.

10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가락, 발가락과 달리 ‘머리카락’의 형태가 나오는 것은 중세 국어에서 ‘머리’가 ㅎ 종성 체언이었기 때문이야.
- ② 조와 쌀이 합성되었을 때 ‘조쌀’이 아니라 ‘좁쌀’의 형태가 나오는 것은 중세에 ‘쌀’의 표기가 ‘찰’이었기 때문이야.
- ③ ‘어리둥절하다’는 중세의 ‘어리다’의 의미와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현대의 ‘어리다’의 의미와는 맥락이 통해.
- ④ ‘좁다’가 ‘좁아’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쉽다’가 ‘쉬워’로 활용되는 것은, 중세에 ‘쉽다’의 활용에 사용되던 ‘빙’이 사라지면서 생긴 변화로 이해할 수 있겠어.
- ⑤ ‘씻다’가 ‘씻어’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짓다’가 ‘지어’로 활용되는 것은, 중세에 ‘짓다’의 활용에 사용되던 ‘△’이 사라지면서 생긴 변화로 이해할 수 있겠어.

11 올바른 언어 사용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래어가 남용(濫用)되고 있으므로, 외래어를 고유어로 전부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②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국의 제2 모국어로 정해야 한다.
- ④ 가상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한 말들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가상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줄여 나가야 한다.
- ⑤ 한국어가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 언어 실태를 성찰하기보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12 <보기>에 제시된 속담의 의미를 고려하여, 유사한 주제를 가진 것끼리 알맞게 분류한 것은?

<보기>

ㄱ.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ㄴ.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ㄷ.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말라.
 ㄹ.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ㅁ.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

말을 조심하라. 말을 해야 한다.

- | | | |
|---|---------|------|
| ① | ㄱ, ㄴ, ㄷ | ㄹ, ㅁ |
| ② | ㄱ, ㄷ, ㄹ | ㄴ, ㅁ |
| ③ | ㄱ, ㄹ, ㅁ | ㄴ, ㄷ |
| ④ | ㄴ, ㄷ, ㄹ | ㄱ, ㅁ |
| ⑤ | ㄷ, ㄹ, ㅁ | ㄱ, ㄴ |

13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언어 활력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보기>

(가) 리투아니아빌뉴스 세종 학당 수강생:
 어떤 나라 노래 들었어요. 그 노래가 어느 나라 것인지, 누가 지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 한국! 천천히 조금 더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어.

(나) 한국 ○○회사 베트남 법인 영업부 과장:
 한국어는 제가 좋아하는 언어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니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제가 수행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① (가)는 한국어의 경제 자산을 보여 주는 예로, 우수한 인력을 길러 내고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가)는 한국어의 문화 자산을 보여 주는 예로, 교육, 학문, 예술적 측면 전반에서 한국만의 특색을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나)는 한국어의 인구 자산을 보여 주는 예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④ (나)는 한국어의 정치 자산을 보여 주는 예로,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는 한국어의 언어 활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로,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가치와 매력을 보여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14 **서술형** <보기>의 (가), (나)에 나타난 사랑 고백 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5점]

<보기>

(가) 내 오래된 친구인 널 좋아하게 됐나 봐.
/ 아무렇지 않은 듯 널 대해서도 마음은 늘 떨렸어. / 미소 짓는 너를 보며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 아무런 말 하지 못한 채 돌아서서 눈물만 흘렸어. / 말해야 하는데 네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널 고백해야 해.

- 박혜경, '고백'(1998년)

(나) 사랑 많이 다 줄게. 난 너 아니면 못 살아. / 맘은 절대 안 변해. 네가 내 눈에 띄었잖아. 비었잖아. / 네 옆자리 내가 거기서 떡하니 서 있으면 딱 됐네. / 이것 봐 넌 내 거잖아. /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아껴 줄게. 어제까진 친구였지만 오늘부터 내가 네 남자할게. 좋아서 미치겠어.

- 아스트로, '고백'(2016년)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內·넋·측·에 ㅁ·로·딕 ㅁ·릿 ·즈·식 나·호·매 모·든 ·어·미·와 다·못 ㅁ·가·흔 ·이·예 ㅁ·히·오·딕 ·반·드·시 그·어·위·크·고 누·그·러·오·며 즈·상·ㅎ·고 인·해·로·오·며 온·화·ㅎ·고 ·어·딜·며 ㅁ·순·ㅎ·고 :조 심·ㅎ·며 삼·가·고 :말·슴 :저·그·니·를 구·ㅎ·야 ㅎ ·여·곰 ·즈·식·의 스·승·을 사·물 ·디·니·라

[현대어 풀이]

내칙(內則)에서 이르기를 무릇 자식을 낳으면 여러 어머니 그 밖의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그 마음이 넓고 크고 너그러우며 자상하고 지혜로우며 온화하고 어질며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매사에 신중하며, 삼가고 말이 적은 사람을 구하여 자식의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 :유·익·ㅎ ·이 :세 가·짓 :번·이·오 :해·로·온 ·이

:세 가·짓 :번·이·니 直·딕·흔 ·이·를 :번·ㅎ·며 :신·실 ·ㅎ ·이·를 :번·ㅎ·며 들·온 ·것 한 ·이·를 :번·ㅎ·면 :유 ·익·ㅎ·고 :거·동·만 나·근 ·이·를 :번·ㅎ·며 아·당·ㅎ·기 잘·ㅎ·는 ·이·를 :번·ㅎ·며 :말·슴·만 나·근 ·이·를 :번 ·ㅎ·면 해·로·온·이·라

[현대어 풀이]

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요, 해로운 것이 세 가지 벗이니, 정직한 이를 벗하며, 성실한 이를 벗하며, 들은 것이 많은 이를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고, 걸치레만 잘 할 뿐 정직하지 못한 이를 벗하며, 남에게 아침만 잘하는 이를 벗하며, 말만 잘할 뿐 건문의 내실이 없는 이를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15 (가), (나)에서 알 수 있는 선인들의 듣기 · 말하기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신중한 태도로 말을 삼가며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이 유익하다.
- ② 온화한 성격을 가져 남에게 아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유익하다.
- ③ 정직하지는 못하나 자상하고 너그러운 듣기 태도를 지닌 사람이 유익하다.
- ④ 건문의 내실은 적으나 자신이 아는 것을 말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 유익하다.
- ⑤ 상대가 타인을 시기하는 말을 해도 넓은 마음으로 아량 있게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유익하다.

16 (가), (나)의 문법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內·넋·측’으로 볼 때, 형식 종성을 사용하던 한자음 표기 방식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저·그·니’로 볼 때, 주격 조사로 ‘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번·이·오’로 볼 때, 끊어 적기[분절(分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해·로·온’으로 볼 때, ‘병’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⑤ ‘아·당·ㅎ·기’로 볼 때, 명사형 어미로 ‘-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0. 잘 읽고 잘 쓰는 법

- (1) 똑똑하게 매체 읽기
- (2) 글쓰기의 정석

단원	10. 잘 읽고 잘 쓰는 법 - (1) 똑똑하게 매체 읽기	교과서	408~412쪽
학습 주제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을 이해한다. 매체에 나타난 필자의 관점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01 매체의 정의와 종류

매체	인쇄 매체	신문, 잡지	>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매개체가 됨.
메시지를 전달하여 발신자와 수신자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01)	방송 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 매체	인터넷		

02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에 담긴 필자의 특정 관점을 파악함. 필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점의 (01)과 (02) 평가 표현 방법의 효과와 적절성 평가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
---	---	--	--------------

03 매체 비판적으로 읽기 사례(신문 사설)

	표현	효과	비판적 읽기
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이라는 비유적 표현 사용 조사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의 심각성을 인상적으로 드러냄. 핵심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제시함. 	표제의 내용이 본문의 문제 해결 방안과 일치하지 않음.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관의 전망을 인용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의 (02)을 강화하고 있음.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글의 설득력을 높임. 	
사진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의 모습	고령자를 노동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자의 관점을 드러냄.	필자의 관점을 드러내면서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 없으므로 타당하고 공정함.

04 매체 비판적으로 읽기 사례(인쇄 광고)

	표현	효과	비판적 읽기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군인, 회사원 등 이미지 속 대상을 (01)함. 질문을 던짐. 도치법을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과 같은 평범한 독자들에게 대한 설득 효과를 강화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함. 주제를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9세까지 누구나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엄마’만 언급한 것은 성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02)에 위배됨.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대상을 제시함. 대상과 어울리는 배경을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줌. 문구와 조화를 이루며 전달 효과를 높임.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매체를 통해 집단의 견해는 드러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는 드러낼 수 없다 (○, ×)
- (2)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들도 제작 주체의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
- (3) 매체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더불어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담긴다. (○, ×)
- (4) 매체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통신 매체 순으로 중요도가 커진다. (○, ×)
- (5) 매체를 읽을 때에는 표현 방법보다 관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
- (6) 신문 기사와 뉴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므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

0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신문 기사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 (), ()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 (2) 매체를 읽을 때 필자의 관점이 ()하고 ()한지를 평가함으로써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3) 광고를 읽을 경우에는 (), () 등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 속에 담긴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 (4)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도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이다.
- (5) 인터넷은 메시지를 ()으로 전달할 수 있어 발신자와 수신자가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다.

03 다음은 비판적 읽기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과 () 등을 평가한다.
- (2) 글에서 공감하거나 ()할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생각한다.
- (3) 글의 구성 및 표현의 적절성과 ()를 판단한다.

04 다음의 광고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각각 연결하시오.



- | | | | |
|-------------|---|---|----------------|
| (1) 이미지 속 대 | • | • | ㉠ 대상별 설득 효과 상승 |
| (2) 구체적인 나 | • | • | ㉡ 독자의 관심 유발 |
| (3) 의문형, 도치 | • | • | ㉢ 정확한 정보 전달 |

어휘 체크

05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 (1) 잠재력 | • | • |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
| (2) 둔화 | • | • | ㉡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힘. |
| (3) 편견 | • | • | ㉢ 느리고 무디어짐. |

[01~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다) 매체 평가하며 읽기

(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 등의 매체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를 통한 의사 소통은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이다.

우리는 매체를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에는 필자의 특정 관점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매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견해를 드러내는 방식을 이해하고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가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기 담긴 내용에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 ㉡**기자나 편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사나 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매체는 제작자나 편집자 등에 의해 재구성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광고에도 기업이나 개인, 단체의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매체에 담긴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문을 읽을 경우에는 표제, 본문, 사진 등을, 광고를 읽을 경우에는 문구, 이미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필자의 관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파악하고, 편견에 치우친 부분은 없는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는 매체를 읽을 때 필자의 관점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나)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고령화 속도 늦춰야

인구 고령화가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 통화 기금(IMF) 총재는 ○○대 강연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 2%까지 떨어질 수 있

다.”라고 경고했다. 인구 고령화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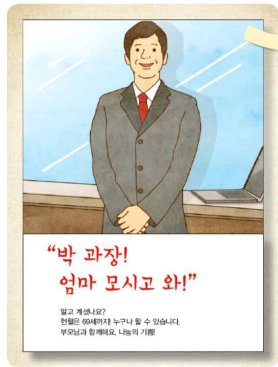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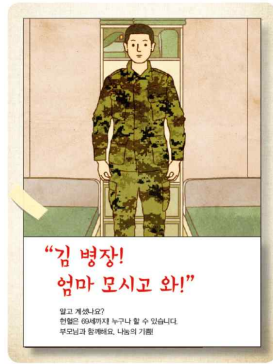
한국 개발 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등으로 2050~2060년에 경제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급속히 둔화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 시장에 유입되는 20~30대는 줄어들고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활동의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의 부작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양면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인 인적 자원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또한 최고 임금제 등을 통해 고령자들의 생산 활동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연구 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근로자, 기업, 정부가 힘을 합치면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신문 2013년 12월 7일 자

(다)





01 (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체에 특정한 관점을 담은 부도덕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 ② 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매체를 만든 주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③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관점과 표현 방법을 평가하며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④ 매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매개 수단이므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 ⑤ 매체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적절성은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드러내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02 (나)에 <보기>와 같은 사진을 추가하려고 한다.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진에 담긴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한 일 외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② 노인들도 얼마든지 생산 가능 인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③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들 스스로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④ 은퇴자들이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⑤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는 노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03 (나)와 (다)의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늬’이라는 비유적 단어를 표제에 활용함.
→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효과
- ② (나):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관의 전망을 인용함.
→ 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효과
- ③ (다): 다양한 인물을 광고에 활용함.
→ 현현의 이점을 강조하는 효과
- ④ (다): 도치법을 사용하여 문구를 구성함.
→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
- ⑤ (나), (다):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함.
→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

04 (다)를 만든 사람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헌혈이 69세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지.
- ② 헌혈이 사회적인 나눔의 기회인 점을 강조해야지.
- ③ 다양한 대상을 광고에 담아 ‘누구나’를 강조해야지.
- ④ 헌혈이 부모님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야지.
- ⑤ 대상과 어울리는 배경을 설정하여 문구와의 조화를 통해 전달 효과를 높여야지.

05 **서술형** (다)에 대한 <보기 1>의 평가를 참고하여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를 <보기 2>와 같이 서술할 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5점]

<보기 1>

이 헌혈 광고는 학생과 군인 그리고 회사원에게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헌혈하자는 취지이지만 어디에도 아빠를 모시고 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기 2>

매체에는 필자의 특정 관점이 드러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관점이 _____ 따라서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0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사회 공동의 견해를 의미하고, ㉡은 개인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 ② ㉠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의미하고, ㉡은 증명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한다.
- ③ ㉠은 진실을 의미하고, ㉡은 특정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성된 내용을 의미한다.
- ④ ㉠은 정직한 내용을 말하지만, ㉡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 ⑤ ㉠은 독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하고, ㉡은 제작자가 알려 주고 싶은 내용을 의미한다.

07 다음 중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퇴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린다.
- ②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에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 ③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 ④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
- ⑤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결혼, 출산 등에 대해 홍보하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단원	10. 잘 읽고 잘 쓰는 법 - (2) 글쓰기의 정석	교과서	420~422쪽
학습 주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 과정의 점검, 조정과 고쳐쓰기’를 읽고, 쓰기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01 쓰기 맥락

주제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⁰¹)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자기 성찰 중 무엇인가?
독자	연령, 지적 수준, 사회적·문화적·교육적 배경, 가치관, 관심사 등은 어떠한가?
매체	어떤 매체에 글을 실을 것인가?

02 쓰기 과정에 따른 민수의 글쓰기

계획하기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의 (⁰¹)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글의 방향을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독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다. 목적: 정보 전달 독자: 우리 반 친구들 매체: 학급 신문
내용 생성하기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상한 후, 책, 신문, 인터넷,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 중에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핵심 정보를 선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자료 수집 중심 내용: 독도의 기후, 독도의 생태
내용 (⁰²)	선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한 내용을 쓰기 맥락에 맞게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정하기 (⁰³) 쓰기: ‘처음 - 중간 - 끝’으로 구성
초고 쓰기	쓰기 맥락에 맞게 적절한 어휘·어법, 표현 방법, 문체 등을 사용하여 글을 씀.	적절한 어휘·어법, 표현 방법 등을 활용하여 초고 쓰기
고쳐쓰기	쓰기 맥락을 고려하며 자신이 쓴 글이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선택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⁰⁴) 하고 조정함.	쓰기 맥락을 고려하며 글의 내용 및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단원	10. 잘 읽고 잘 쓰는 법 - (2) 글쓰기의 정석	교과서	427~428쪽
학습 주제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 있게 쓰기’를 읽고,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쓰기 태도를 이해한다. 쓰기 윤리와 관련한 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본다. 		

01 쓰기 윤리

(⁰¹)의 개념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진솔하게 쓰는 것, 사실에 바탕을 두고 과장이 없이 글을 쓰는 것 등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등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⁰²)을 침해하지 않는 것 등

02 책임감 있게 쓰기를 위해 고려할 점

신중한 태도로 쓰기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 (⁰¹)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에는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고 신중하게 쓰도록 한다.
저작권 존중하며 쓰기	(⁰²)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면 불법이다. 즉,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
언어 예절 지키며 쓰기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혹은 대면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속한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03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의 방법

정의	책(글), 음악, 영화, 인터넷상의 글, 사진, 동영상 등 (⁰¹)에 대해 저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서 더 좋은 창작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음. 우리의 문화 발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글을 쓸 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⁰²)를 표기해야 함.

04 쓰기 윤리 관련 사례

지수	자신이 다녀온 맛집에 대해 사실을 과장하여 블로그에 올림.	>	내용을 과장, 왜곡, 축소해서는 안 됨.
철민	유명 시인이 지은 시를 자신이 지은 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함.	>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 없이 베껴 쓰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⁰¹) 없이 인용하면 안 됨.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 ×)
- (2) 주제, 목적, 독자가 같다면 글을 쓰는 매체가 달라지더라도 글의 내용과 형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 ×)
- (3) 쓰는 과정을 통해 내용은 보완할 수 있지만 형식은 보완할 수 없다. (○, ×)
- (4) 쓰기 과정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 (○, ×)
- (5) 고쳐쓰기에서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으로 순서를 밟으며 글을 검토하고 다듬는 것이 좋다. (○, ×)

0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쓰기 맥락은 (), (), (), () 등을 이룬다.
- (2)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하고 조정하며 글을 고쳐 써야 한다.
- (3) 쓰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과정은 ()이다.
- (4) () 단계에서는 생성한 내용을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조직한다.
- (5) 고쳐쓰기 과정에서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에 맞게 쓰였는지,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선택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수정해야 한다.
- (6)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완하는 것은 ()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서이다.

03 다음의 각 쓰기 과정이 무엇인지를 쓰시오.

(1)	쓰기 맥락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글의 방향을 결정함.
▽	
(2)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상한 후 자료를 수집함.
▽	
(3)	선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함.
▽	
(4)	쓰기 맥락을 고려하며 적절한 표현 방법과 문체로 어법에 맞게 글을 씀.
▽	
(5)	쓰기 맥락을 고려하며 글을 수정·보완함.

어휘 체크

04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1) 조정 | • | ㉠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육지. |
| (2) 보고 | • | ㉡ 하늘이 베푼 은혜. 또는 자연의 은혜. |
| (3) 천혜 | • | ㉢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
| (4) 내륙 | • | ㉣ 귀중한 것이 많이 나거나 간직되어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인터넷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으므로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가 필요하다. (○, ×)
- (2)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지닌다. (○, ×)
- (3)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
- (4) 저작권 보호는 우리의 문화 발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
- (5) 인터넷 블로그는 개인적인 공간이므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 (○, ×)

02 다음 만화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지수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에 자신의 경험을 올릴 수 있다.
- (2) 지수처럼 내용을 과장하여 글을 쓰는 것은 ()에 어긋나는 일이다.
- (3) 인터넷은 ()이 크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 (4)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 ()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5) 인터넷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을 갖고 써야 한다.

0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자의 ()을 받고 ()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2) ()은 창작물에 대해 그 창작물의 저작자가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다.

어휘 체크

04 다음의 뜻을 지닌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과장, 과시, 파급, 과장, 유발, 배타적

- (1) 자랑하여 보임. ()
- (2)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 ()
- (3) 남을 배척하는. 또는 그런 것.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 쓰기 과정의 점검, 조정과 고쳐쓰기

(가) 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에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쓴 글이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선택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고쳐쓰기에서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으로 순서를 밟으며 글을 검토하고 다듬어야 한다.

(나) 학습 신문 게시글의 초고

독도는 1982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목되어 보호될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천혜의 섬이라 불리는 독도의 기후와 생태를 알아보자.

독도는 해류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작고 습도가 높은 해양성 기후를 띤다. 이러한 독도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에는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있다.

독도의 평균 기온은 1년 중 가장 추운 1월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가장 더운 8월에도 24℃를 넘지 않는다. 연평균 기온은 약 12℃로 비슷한 위도의 내륙 지역과 비교했을 때 ㉡통 따뜻하다. 또한 독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약 1,240mm이며 강우 일수가 150일 정도로, 1년 중 85%가 흐리거나 눈, 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독도는 염분이 많은 강한 해풍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육지보다 식물의 종류가 적고 나무의 키도 작은 편이다. 하지만 독도에 사는 팽이밥, 섬장대, 곰솔 등 약 50~60종의 식물들은 육지의 식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여 줌으로써 천연기념물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높여 준다.

㉣하지만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독도 주변 해역에는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해양 생물로는 오징어, 도루묵, 조피볼락 등의 어류와 홍합, 전복 등의 패류, 미역,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있다.

이렇게 독도는 연중 온난 다습한 ㉤문화적 특질을 배경으로 독특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을 터전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면서 독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우뚝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01 다음은 (나)의 개요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천혜의 섬, 독도의 기후와 생태

- [처음]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큼.
- [중간] 1. 독도의 기후
 - [㉦]
 - 독도의 기온
 - 독도의 강수량과 강우 일수
- 2. 독도의 생태
 - 독도의 식물
 - 독도의 해양 생물
 - 독도의 조류
- [끝] 독도는 연중 온난 다습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음.

- ① (나)와 비교할 때 ‘[처음]’은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독도의 가치가 크게 상승됨.’으로 내용이 바뀌었군.
- ② (나)의 내용을 읽어 보니, ㉦에는 ‘독도의 기후적 특징’이 들어가야겠군.
- ③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의 3문단에 독도의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를 첨부하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겠군.
- ④ (나)에 ‘[중간] 2. 독도의 생태’의 하위 항목인 ‘독도의 조류’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으니 이를 추가해야겠군.
- ⑤ [끝]의 내용으로 보아, 글의 통일성을 위해 (나)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해야겠군.

02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를 고쳐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휘가 적절하지 않으니 '지정되어'로 고친다.
 ② ㉡: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으니 '더'로 바꾼다.
 ③ ㉢: 피동 표현이 부적절하니 '높혀'로 고친다.
 ④ ㉣: 문단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⑤ ㉤: 앞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후적 특징'으로 고친다.

03 **주관식** (나)의 '계획하기'가 다음과 같을 때, ㉠, ㉡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	㉡	우리 반 친구들	학급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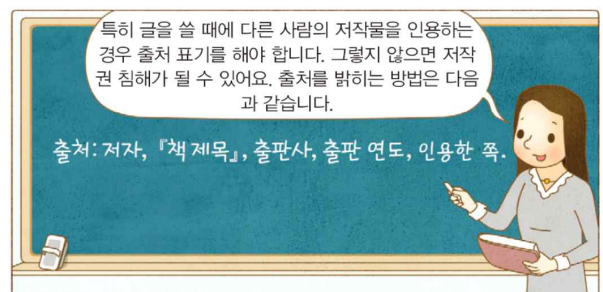
[04~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 책임감 있게 쓰기

(가) 상황 1



(나) 상황 2





04 (가)와 (나)를 통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쓸 때에는 흥미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② 인터넷상의 정보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 ③ 글을 쓸 때에는 쓰기 윤리를 지켜 정직하고 신중하게 써야 한다.
- ④ 글을 쓸 때에는 매체의 과급력을 고려하여 좋은 글만 올려야 한다.
- ⑤ 인터넷상에서 쓰기 활동을 할 때에는 적극적인 댓글을 통해 상대방과 소통해야 한다.

05 <보기>의 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④인터넷상에 쓴 글은 ⑥순식간에 ③전 세계로 퍼질 수 있어. 이미 그 글에 ④댓글이 많이 달렸더라.”

“인터넷의 ③과급력은 매우 크니 ⑥책임감을 갖고 글을 써야 해.”

- ① ③과 ④는 모두 ⑥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③과 ④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어.
- ③ ⑥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
- ④ ③, ⑥과 관련된 속성은 인터넷이 과급력을 지니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
- ⑤ ⑥는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06 ‘저작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은 물론 음악, 미술 등의 영역에서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에 대해 적용된다.
- ③ 남의 글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글의 출처를 밝힐 때에는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한 쪽 등을 적는다.
- 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창작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

07 [서술형] 저작권이 없다면 최근 외국에서 유행하는 한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를 참고하여 (1)과 (2)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5점]

우리나라의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해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복사하고 변형하여 사용할 때 저작권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1)_____ 사회·국가적으로는 (2)_____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다) 매체 평가하며 읽기

(가) 우리는 매체를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에는 필자의 특정 관점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매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견해를 드러내는 방식을 이해하고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가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기 담긴 내용에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 기사나 편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사나 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매체는 제작자나 편집자 등에 의해 재구성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광고에도 기업이나 개인, 단체의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매체에 담긴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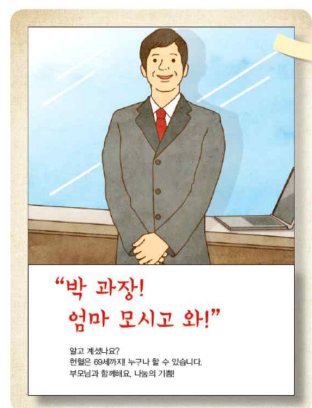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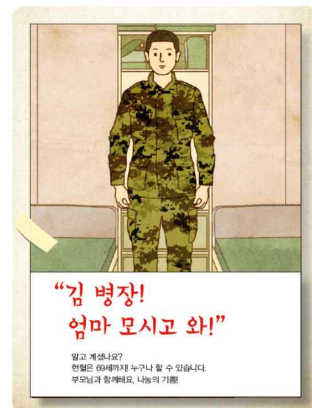
(나) 한국 개발 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등으로 2050~2060년에 경제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급속히 둔화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 시장에 유입되는 20~30대는 줄어들고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활동의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의 부작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양면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인 인적 자원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또한 최고 임금제 등을 통해 고령자들의 생산 활동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연구 개발 투자를 대폭 늘

리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근로자, 기업, 정부가 힘을 합치면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신문 2013년 12월 7일 자

(다)



01 (가)를 참고로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다)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 ② (나)의 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여기고 있다.
- ③ (나)의 필자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에서 다양한 대상을 광고에 내세운 것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누구나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 ⑤ (다)에서 ‘아빠’가 아닌 ‘엄마’만 언급한 것은 육아를 ‘엄마’의 것으로만 보는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02 <보기>의 글쓴이가 (나)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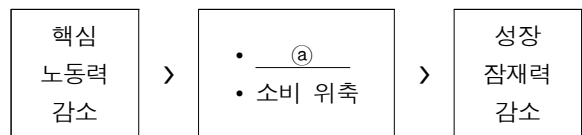
<보기>

일본의 정년은 65세인데, 고용 보험에서 고령자의 임금을 지원해 주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 외에 세금 우대 혜택도 준다.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65세 이상 고용률은 2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도 OECD 1위이다. 이른 정년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도 문제지만 노인의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다 보니 생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 ① 고령자의 생산 활동 참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일이다.
- ② 고령자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노인들의 빈곤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생산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 ④ 고령자들의 생산 활동 참여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자 생산 활동이 매우 모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03 [주관식] ㉠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04 (다)의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인물을 광고에 내세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말을 건네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달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헌혈에 대한 제작자의 판단보다 객관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를 홍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05~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 쓰기 과정의 점검, 조정과 고쳐쓰기

(가) 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에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쓴 글이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선택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고쳐쓰기에서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으로 순서를 밝으며 글을 검토하고 다듬어야 한다.

쓰기 과정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

(나) 천혜의 섬, 독도의 기후와 생태

독도는 1982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천혜의 섬이라 불리는 독도의 기후와 생태를 알아보자.

독도는 해류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작고 습도가 높은 해양성 기후를 띤다. 이러한 독도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에는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있다.

독도의 평균 기온은 1년 중 가장 추운 1월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가장 더운 8월에도 24℃를 넘지 않는다. 연평균 기온은 약 12℃로 비슷한 위도의 내륙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 따뜻하다. 또한 독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약 1,240mm이며 강우 일수가 150일 정도로, 1년 중 85%가 흐리거나 눈, 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독도는 염분이 많은 강한 해풍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육지보다 식물의 종류가 적고 나무의 키도 작은 편이다. 하지만 독도에 사는 팽이밥, 섬장대, 곰솔 등 약 50~60종의 식물들은 육지의 식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여 줌으로써 천연기념물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높여 준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독도 주변 해역에는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해양 생물로는 오징어, 도루묵, 조피볼락 등의 어류와 홍합, 전복 등의 패류, 미역,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있다.

더불어 독도는 이동 중인 철새들의 소중한 쉼터로, 팽이갈매기와 습새, 바다제비, 황조롱이 등의 조류가 독도에서 관찰되었다.

(A) 이런 환경을 터전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면서 독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우뚝 자리 잡게 된 것이다.

05 (나)의 중심 내용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도의 식물
- ② 독도의 해양 생물
- ③ 독도의 행정 구역
- ④ 독도의 기후적 특징
- ⑤ 독도의 강수량과 강우 일수

06 ㉠이 ‘학급 신문’에서 ‘학교 누리집’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때, (나)를 점검·조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도에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는 모습을 짧은 동영상으로 첨부해야지.
- ② 작성된 글을 올리는 대신, 글의 내용을 나레이터가 읽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군.
- ③ 댓글을 통해 글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군.
- ④ 독도의 가치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삽입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겠군.
- ⑤ 매체의 변화로 인해 주제, 목적, 독자가 달라지므로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조정해야겠군.

07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글의 ‘끝’ 부분에서는 ‘중간’ 부분에서 다른 내용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들이 앞에서 익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므로 글쓰기가 말하려는 바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① 결국 독도의 독특한 기후는 독도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 ② 요컨대 독도의 기후와 생태계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특성은 모두 해류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이런 점으로 볼 때, 독도는 식물에게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류에게는 매우 훌륭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이렇게 독도는 연중 온난 다습한 기후적 특징을 배경으로 독특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형성하게 되었다.
- ⑤ 그러므로 독특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독도는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0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쓰기 윤리 (나)~(다) 책임감 있게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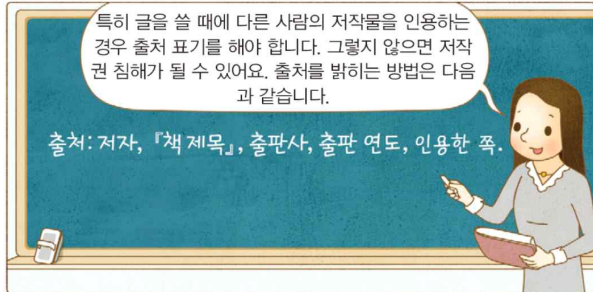
(가) 쓰기 윤리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진솔하게 쓰는 것, 사실에 바탕을 두고 과장이 없는 글을 쓰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등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된다.

(나) 상황 1



(다) 상황 2





08 (가)~(다)를 배운 후 학교 누리집에 ‘우리 학교 홍보 글’을 쓰고자 할 때,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그 자료를 글에 활용하게 되면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해.
- ② 내용을 선정한 후 좋은 자료들을 수집해 보자. 학교를 홍보하려는 마음에 통계 자료 등을 왜곡해서는 안 돼.
- ③ ‘우리 학교의 일과’를 중심으로 쓰는 건 어떨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생활을 사실대로 소개할 수 있어 내용이 과장되지 않을 거야.
- ④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는 인근 학교들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훨씬 더 많다고 하셨으니 그 얘기를 강조해서 쓰면 어떨까?

- ⑤ 글을 쓴 후 학교 누리집에 올리기 전에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글을 점검·조정하도록 하자.

09 **주관식** (가)와 관련하여 (나)와 (다)를 아래와 같이 평가할 때,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의 ‘지수’는 사실을 왜곡하여 (㉠)했기 때문에 (㉡)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고, (다)의 ‘철민’이는 모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지니는 (㉢)을 무시했기 때문에 (㉣)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10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 작품에도 적용된다.
- ② 작가가 사망한 후에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저작권의 침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 ④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 ⑤ 저작권은 창작자의 유명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반인의 창작물은 저작권과 관련 없이 활용될 수 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나) 교과서 외 제재

(가) **앵커:**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채 버려진 강아지, 이런 동물 학대 신고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 ○○시의 한 도로가. 쓰레기봉투에 머리와 발이 보이고, 봉지를 뜯자 강아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쓰레기봉투 안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한 건데, 다리와 갈비뼈가 골절돼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찰이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린 혐의로 27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동물 단체는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고, 경찰도 A씨를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 동물 친구 대표] “동물이 다리가 부러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동물 보호법 위반 사건은 해마다 늘어 3년 새 30%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학대 사건이 70여 건이나 접수됐고 실제 50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도 동물 학대와 관련한 수사 수칙 등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뉴스 ○○○입니다.

(나) 어제 귀사의 9시 뉴스에서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보도를 다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로서 자극적인 화면 때문에 불편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나올 때 화면에는 살아 있는 반려 동물이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심하게 다친 반려동물의 모습을 보며 저는 과연 이 장면이 방송에 내보낼 만한 것인지, 혹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의도한 장면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는 뉴스에 제공될 자료는 대중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건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시도였겠지만, 가족과 함께 이 뉴스를 시청하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제공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제 장면처럼 자극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에 보다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나)의 필자가 (가)의 관점 및 표현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관점	표현
㉠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자극적인 장면에 대한 지나친 노출은 부적절함.
㉡ 시청률을 의식하여 자극적으로 편집하였다.	㉡ 모자이크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움.
㉢ 동물 학대를 하나의 관심거리로 보고 있다.	㉢ 인터뷰로 화제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선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12 쓰기 윤리라는 맥락에서 볼 때, (나)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사’, ‘저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며 글을 쓰고 있군.
- ② 상대방의 보도로 인해 ‘불편했던 점’에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있군.
- ③ ‘국어 교과서’라는 출처를 밝히며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내용을 활용하고 있군.
- ④ 뉴스에서 사용한 자료가 저작권을 위반한 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군.
- ⑤ ‘어제’, ‘9시 뉴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보도’ 등 사실에 바탕을 두고 내용을 제시하고 있군.